

패브릭 **fabric**은 깊은과 최석환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0-9** 벤처빌딩 **301**호에 위치해있으며 편집,  
전시, 웹, 브랜딩, 사이니지, 아트디렉션, 패키지, 포스터, 글자를  
아우르는 그래픽 디자인을 합니다.

[hello.studio.fabric@gmail.com](mailto:hello.studio.fabric@gmail.com)  
[studiofabric.kr](http://studiofabric.kr)

김깊은은 한양여자대학교 섬유디자인과와  
**PaTI**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를 졸업하고 **Hey Joe**,  
**S/O Project**, 안그라픽스 타이포그라피연구소를 거쳐  
2019년부터 최석환과 패브릭 **fabric**을 운영하고 있다.

#### Clients

주한프랑스문화원,  
작은것이 아름답다, 하자센터,  
서울시 NPO 지원센터,  
안그라픽스 타이포그라피연구소,  
대전시립미술관

최석환은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School of Visual Arts**를  
졸업하고 **Why Not Smile, Math Practice, S/O Project**를  
거쳐 2019년부터 김깊은과 패브릭 **fabric**을 운영하고 있다.

#### Exhibition

19회 전주국제영화제 100 Films,  
100 Posters 전시 참여, 2018.05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tE13: 사진과  
타이포그래피 전시 참여, 201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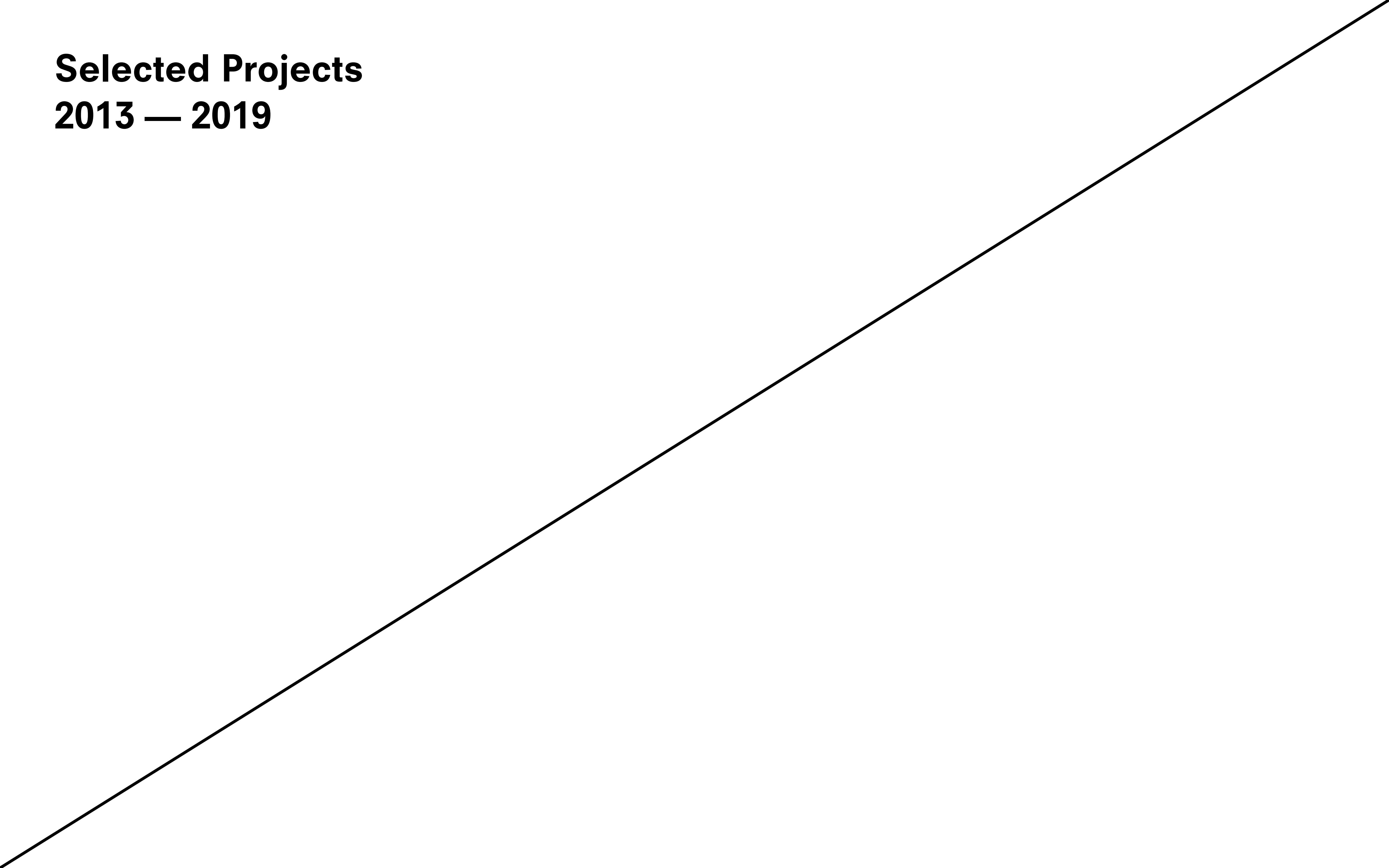
18회 전주국제영화제 100 Films,  
100 Posters 전시 참여, 2018.04

2017 타이포잔치 100 Daughters,  
10 Mothers

2017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포스터 전시 참여, 2017.02

# **Selected Projects**

## **2013 — 2019**



# Dream Cells

## 2018

2018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선보인  
건축 스튜디오 바레 BARE의 Dream Cells  
파빌리온 그래픽 디자인 및 포스터 디자인













# 최정호 민부리 글꼴보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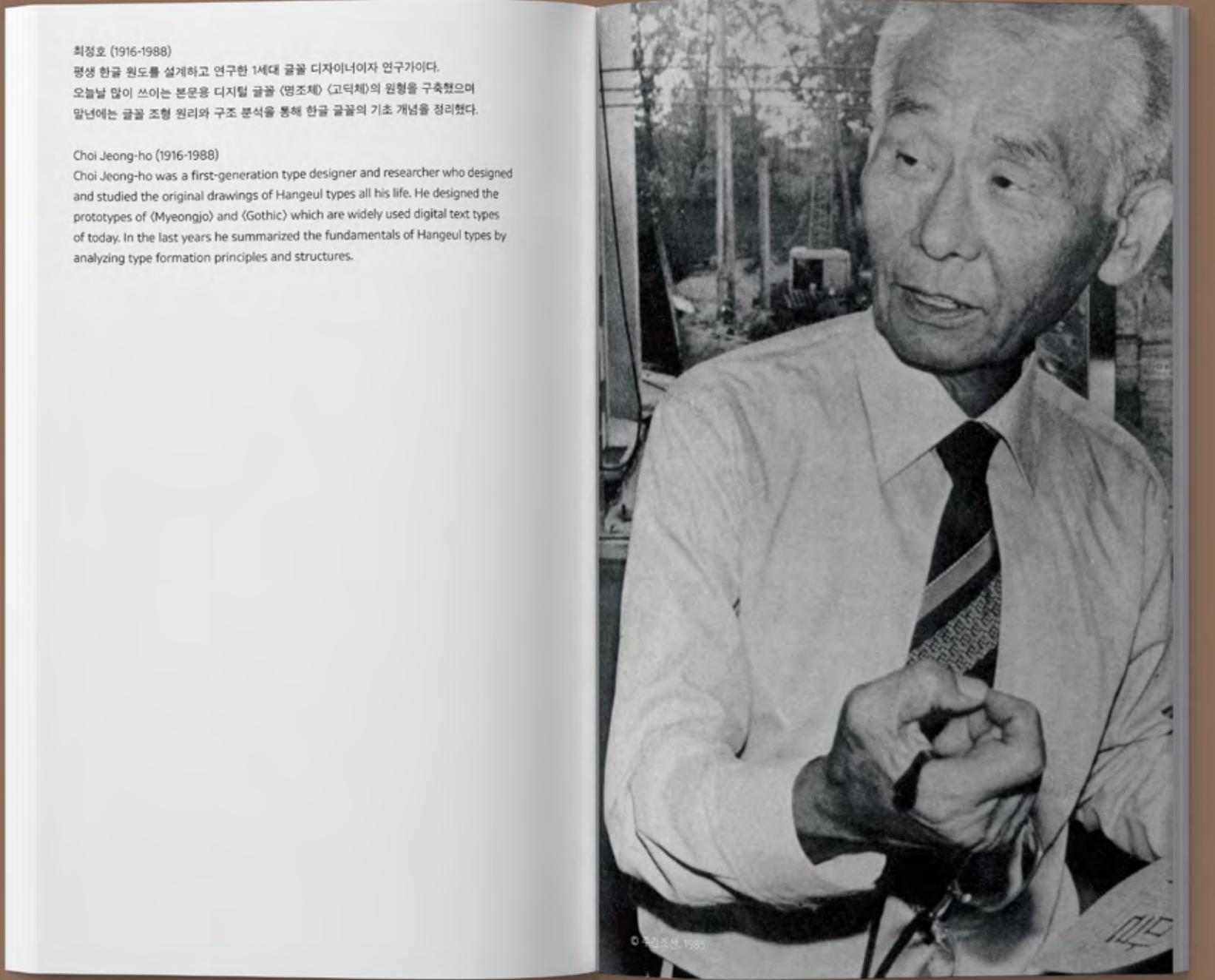
## 2018

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정호 시리즈로 1세대 글꼴 디자이너이자  
연구가였던 최정호의 글꼴 원도 재창작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이다. 책의 전체적인 컨셉과  
내지 편집 디자인을 했다.

판형 115×185mm  
제본 각양장제본  
페이지 총 148페이지

\* 본 이미지는 제안했던  
표지안으로 최종 표지는 다르게  
디자인되었다.





최정호 (1916-1988)

평생 한글 원도를 설계하고 연구한 1세대 글꼴 디자이너이다.  
오늘날 많이 쓰이는 본문용 디지털 글꼴 (영조체) (고딕체)의 원형을 구축했으며  
말년에는 글꼴 조형 원리와 구조 분석을 통해 한글 글꼴의 기초 개념을 정리했다.

Choi Jeong-ho (1916-1988)

Choi Jeong-ho was a first-generation type designer and researcher who designed and studied the original drawings of Hangeul types all his life. He designed the prototypes of (Myeongjo) and (Gothic) which are widely used digital text types of today. In the last years he summarized the fundamentals of Hangeul types by analyzing type formation principles and structures.

#### 일러두기

- (AG최정호 민부리 Std.)는 최정호 민부리 원도를 바탕으로 복원된 폰트이다.
- ‘민부리’는 한글을 계열 중 글자 줄기의 머리나 뒷머리에 부리가 없는 글자체이다. 로마자 계열 중 ‘Sans-serif’와 같은 개념으로 봄을 수 있으나 한글을 민부리 계열의 고유한 특징을 담을 수 없어 번역문에서도 ‘Minburi’ 용어를 사용했다.
- 각주의 용어 설명은 「타이포그래피 사전」, 앤그라피스, 2012, 「한글디자인 교과서」, 앤그라피스, 2009, 「한국폰트협회 규격」, 2018을 참고하고 AG 타이포그래피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참고해 옮겼다.

#### Notes:

- (AGChoiJeongho Minburi Std.) is a digital type designed based on the original drawings of Choi Jeong-ho's sans-serif type.
- ‘Minburi’ is a style of type without serif on the beginning nor on the end of strokes. It can be understood as a similar concept as the ‘Sans-serif’ of the Roman Alphabets. Yet, the terminology ‘Minburi’ is used in the translation as the terminology ‘Sans-serif’ is unable to convey the unique features of the Hangeul Minburi types.
- Terminologies in the footnote are referred from ‘Typography Dictionary’, ahngraphics, 2012, ‘Hangeul Design Textbook’, ahngraphics, 2009, ‘Korean Font Association Standards’, 2018 and AG Typography Institute.

#### 소개

|           |                    |     |
|-----------|--------------------|-----|
| 소개        | Introduction       | 22  |
| 한글        | Hangeul            | 24  |
| 로마자       | Roman Alphabet     | 56  |
| 숫자 · 기호활자 | Numerals & Symbols | 74  |
| 판짜기       | Typesetting        | 93  |
| 글리프       | Glyph              | 110 |
| 글꼴정보      | Font Information   | 145 |

#### 목차

20

Contents

21

## 한글

## Hangeul

가

〈최정호 민부리〉는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가 그의 말년에 설계한 본문용 민부리 계열 글꼴이다. 손으로 그린 최정호 글자체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각 쪽자의 비례는 조화롭게, 속공간은 넉넉하게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다른 최정호 민부리계열 글꼴과 마찬가지로 굽과 돌기가 있으며 손으로 그린 곡선을 갖고 있다.

〈AG최정호 민부리 Std.〉는 위의 원도 1,353자 중 원성형 1,058자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글꼴이다. 이 글꼴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다. 스탠다드 버전은 한글 2,574자, 로마자 298자, 문장 부호를 포함한 기호활자 782자를 지원한다. 이후에 개발될 프로 버전은 한글 11,172자와 전문적인 판짜기가 가능하도록 추가 확장 로마자와 기호활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Choijeongho Minburi〉 is a Minburi type designed by the Hangeul designer Choi Jeong-ho in his later years. While maint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Choi's hand-drawn style, this type is also characterized by its adjusted letter proportions and spacious counters. Like other Minburi types of Choi Jeong-ho, this typeface also has heels, spurs and hand-drawn curves.

〈AGChoijeongho Minburi Std.〉 is a digital typeface based on the 1,058 letters of the 1,353 original drawings. This typeface is developing in two versions: The Standard version includes 2,574 Hangeul letters, 298 Roman Alphabets and extended Roman Alphabets, and 782 punctuations and symbols. The Pro version, which will be developed later, will include 11,172 Hangeul letters and additional extended Roman Alphabets and symbols for professional typesetting.

다른 최정호 민부리 계열 글꼴과 마찬가지로  
굽과 돌기가 있다.

Like other Minburi types of Choi Jeong-ho,  
this typeface also has heels and spurs.

방



한글

32

Hangeul

33

돌기 사용 규칙 1  
달자 <ㄴ> <ㅂ> <ㅅ>과 세로줄기 머리에 모두 적용한다.

돌기 사용 규칙 2 – 짧은 기둥

- 2.1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제외한다.
- 2.2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달자 속공간이 열린 글자의 짧은 기둥에만 적용한다.

Spur Usage Rule No. 1

It is applied on consonants <ㄴ> <ㅂ> <ㅅ> and on the beginning of all of vertical strokes.

Spur Usage Rule No. 2 – Short vertical stroke

- 2.1 When there is a final consonant, it is eliminated.
- 2.2 When there is no final consonant, it is only applied on the short vertical strokes of syllable letter with open-counter consonants.

네 멋

곰 용

초 쿄

한글

36

Hangeul

37

<금> <멍>과 같이 달자와 홀자의 짧은 기둥 또는  
걸출기가 만나는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단 <勠>과 같이  
줄기가 많은 날글자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There is a space between consonant and  
short vertical/horizontal strokes of vowel as in  
<금> and <멍>. This is omitted in syllabic letters with  
multiple strokes such as <勠>.

수 흐 맹

낱글자 « 은글자, 은자  
달자와 홀자 혹은 달자의 홀자와 받침이 모여  
온전한 소리를 이루는 글자. »

Natgeulja (Syllabic letter) ≈ Ongeulja, Onja  
A letter with syllable composed of consonant and  
vowel or consonant, vowel and final consonant.

한글

46

Hangeul

47

글꼴의 전체 균형을 위해 받침밀선을 고르게 정리했다.

The underlining of final consonant is evenly  
adjusted for the overall balance the typeface.

만 많

맙 맛

한글

48

Hangeul

49

로마자와 한글이 조형적으로 어울리도록 어센더에  
돌기가 있고 디센더 맷음에는 기울기가 있다.

In order to formatively harmonize the Roman Alphabets and Hangeul, spurs are applied on the ascenders and angled stroke ends are applied on the descenders.

어센더라인  
Ascender Line

베이스라인  
Base Line

디센더라인  
Descender Line

로마자 64

Roman Alphabet 65

## 숫자 · 기호활자

## Numerals & Symbols

3 @

75

숄더가 힘있는 곡선으로 그려져 한글과  
조형적인 조화를 이룬다.

In order to formatively harmonize with the Hangeul, the shoulder is drawn in a strong curve.

숄더  
The curve stroke aiming downward from a vertical stroke.  
It can be found in letters such as h, m and n.

로마자 소문자 h, m, n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수직 획에서 갈라져나와 이어지는 곡선 부분.

Shoulder

로마자 68

Roman Alphabet 69

기본 숫자는 가변너비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 가변너비, 올드스타일,  
전각너비, 고정너비의 숫자를 선택해 쓸 수 있다.

Basic numerals are proportional-spaced.  
A collection of proportional-spaced, old style,  
full-width, mono-spaced numerals allows various usages depending on the purpose.

2019  
기변너비  
Proportional-Spaced

2019  
올드스타일  
Old Style

2019  
전각너비  
Full-Wid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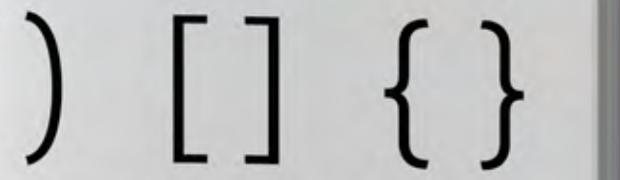
2019  
고정너비  
Mono-Spaced

로마자 · 기호활자 76

Numerals & Symbols 77

각 용도에 알맞은 괄호와 묵음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A collection of parenthesis and brackets allows various usages depending on the purpose.



둥근괄호  
Parenthesis      직각대괄호  
Square Bracket      전각중괄호  
Full-Width Curly Bracket



낫표  
Corner Bracket      겹낫표  
White Corner Bracket      검정꼴표  
Black Lenticular Bracket



벌린대괄호  
Tortoise Shell Bracket      산괄호  
Angle Bracket      겹산괄호  
Double Angle Bracket

## 오감도

### 시제 4호

#### 환자의용태에관한문제.

|                         |
|-------------------------|
| ● 0 e 8 ↳ ə 2 ʌ ɛ ɔ ɪ   |
| 0 ● e 8 ↳ ə 2 ʌ ɛ ɔ ɪ   |
| 0 e ● 8 ↳ ə 2 ʌ ɛ ɔ ɪ   |
| 0 e 8 ● ↳ ə 2 ʌ ɛ ɔ ɪ   |
| 0 e 8 ↳ ● ə 2 ʌ ɛ ɔ ɪ   |
| 0 e 8 ↳ ə ● 2 ʌ ɛ ɔ ɪ   |
| 0 e 8 ↳ ə 2 ● 2 ʌ ɛ ɔ ɪ |
| 0 e 8 ↳ ə 2 ʌ ● 2 ɛ ɔ ɪ |
| 0 e 8 ↳ ə 2 ʌ 2 ɛ ● ɔ ɪ |
| 0 e 8 ↳ ə 2 ʌ 2 ɛ 2 ● ɪ |

진단 0 • 1  
26 • 10 • 1931

이상 책임의사 이 상

| 기호                     | 설명                        | 기호                              | 설명                              |
|------------------------|---------------------------|---------------------------------|---------------------------------|
| <u>논리</u>              |                           |                                 |                                 |
| p=q                    | p 또는 q                    | $\angle ABC, \angle B$          | 반직선 BA와 BC가 이루는 각, B를 복지점으로 하는각 |
| p≠q                    | p 이고 q, p 그리고 q           | $\angle R$                      | 직각                              |
| $\neg p, \neg q$       | p가 아니다                    | $\triangle ABC=\triangle DEF$   | 삼각형 ABC와 DEF는 합동이다              |
| $p \wedge q, p \sim q$ | p와 q는 동치                  | $\Delta ABC \approx \Delta DEF$ | 삼각형 ABC와 DEF는 달았다               |
| $\forall x \in P$      | 모든 x에 대해 p(x)가 성립한다       | [a], [a]                        | 벡터 a의 놈(norm, 길이)               |
| $\exists x (p(x))$     | p(x)가 성립되도록 하는 x가 존재한다    | (a, b), <a, b>                  | 벡터 a, b의 내적                     |
| <u>집합</u>              |                           |                                 |                                 |
| aεA                    |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 aεb                             | 벡터 a, b의 외적                     |
| AεB                    |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 aεb                             | 속(lattice), 불대수의 원소             |
| AεB                    | A는 B의 전분집합이다              | anb                             | 속(lattice), 불대수의 원소             |
| AUB                    | A와 B의 합집합                 |                                 | a, b의 만남                        |
| AnB                    | A와 B의 교집합                 |                                 |                                 |
| f: A → B               | 집합 A에서 B로의 함수             | $\Delta f$                      | 함수 f의 계자                        |
|                        | 함수 f에 의해 원소 a에 원소 b가 대응한다 | $\Delta^n f$                    | 함수 f의 n계 계자                     |
| f: a → b               |                           | $\int_a^b f(x)dx$               | 함수 f의 정적분                       |
| 수                      |                           | $\int_a^b f(x)dx$               | 함수 f의 부정적분                      |
| [a, b]                 | 폐구간 ( $x   ax \leq b$ )   | $\iint_a^b f(x, y)dxdy$         | 함수 f의 $x, y$ 의 집합               |
| (a, b), ]a, b[         | 개구간 ( $x   ax < b$ )      |                                 | A의 2계 적분                        |
| [a, b), [a, b[         | 반개구간 ( $x   ax \leq b$ )  | $\int_a^b$                      | 곡선 C의 선적분을 나타낸다                 |
| (a, b], a, b]          | 반개구간 ( $x   ax < b$ )     | $\frac{d}{dx}$                  | 매곡선 C의 선적분을 나타낸다                |
| max A                  | 실수의 집합 A의 원소 중 최대인 것      | $\int_a^b$                      | 곡면 D의 5위의 면적분을 나타낸다             |
| max a,                 | 실수 a, 중 최대인 것             |                                 | 곡면 D의 5위의 면적분을 나타낸다             |
| min A                  | 실수의 집합 A의 원소 중 최소인 것      |                                 | 곡면 D의 5위의 면적분을 나타낸다             |
| min a,                 | 실수 a, 중 최소인 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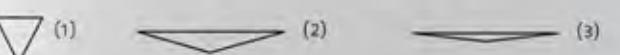
## ○○이○잉○으○옹○와○왕○

### PART I: THIS WORLD

"Be patient; for the world is broad and wide."

#### Section 1. Of the Nature of Flatland

The same thing would happen if you were to treat in the same way a Triangle, or Square, or any other figure cut out of pasteboard. As soon as you look at it with your eye on the edge on the table, you will find that it ceases to appear to you a figure, and that it becomes in appearance a straight line. Take for example an equilateral Triangle—who represents with us a Tradesman of the respectable class. Fig. (1) represents the Tradesman as you would see him while you were bending over him from above; figs. (2) and (3) represent the Tradesman, as you would see him if your eye were close to the level, or all but on the level of the table; and if your eye were quite on the level of the table (and that is how we see him in Flatland) you would see nothing but a straight line.



When I was in Spaceland I heard that your sailors have very similar experiences while they traverse your seas and discern some distant island or coast lying on the horizon. The far-off land may have bays, forelands, angles in and out to any number and extent; yet at a distance you see none of these (unless indeed your sun shines bright upon them revealing the projections and retirements by means of light and shade), nothing but a grey unbroken line upon the water. Well, that is just what we see when one of our triangular or other acquaintances comes toward us in Flatland.

#### 활자체 Typeface 유네스코 UNESCO

기준선 조정법을  
No change in the baseline

#### 활자체 Typeface 유네스코 UNESCO

로마자와 기준선 5% 비율  
Baseline of Roman added 5%

[6] 외곽선, 기준선,  
무게 중심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outline,  
baseline, and center of weight

[7] 글자크기 Size 12, 10, 7.5pt | 글자사이 Tracking - | 글줄사이 Leading 20, -, 14pt

[6] 글자크기 Size 24, 17, 8pt | 글자사이 Tracking - | 글줄사이 Leading -, -, 7.5pt

[7] 글자크기 Size 12, 10, 7.5pt | 글자사이 Tracking - | 글줄사이 Leading 20, -, 14p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1 2 3 4 5 6 7 |   |   |    |   |   |     |
| 8 9 0 1 1 2 3 4 |   |   |    |   |   |     |
| 5 6 7 8 9 0 1 2 |   |   |    |   |   |     |
| 3 4 5 6 7 8 9 : |   |   |    |   |   |     |
| ;               | < | = | >  | ? | @ | A B |
| C D E F G H I J |   |   |    |   |   |     |
| K L M N O P Q R |   |   |    |   |   |     |
| S T U V W X Y Z |   |   |    |   |   |     |
| [ \ ] ^ _ ` a b |   |   |    |   |   |     |
| c d e f g h i j |   |   |    |   |   |     |
| k l m n o p q r |   |   |    |   |   |     |
| s t u v w x y z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3 | ‘ |
| μ | ¶ | . | , | ¹ | º | » | ¼ |
| ½ | ¾ | ¿ | À | Á | Â | Ã | Ä |
| Å | Æ | Ç | È | É | Ê | Ì | Í |
| í | î | ï | đ | ñ | ò | ó | ô |
| õ | ö | × | ø | ú | ú | û | ü |
| Ý | þ | Þ | à | á | â | ã | ä |
| å | æ | ç | è | é | ê | ì | í |
| í | î | ï | ð | ñ | ò | ó | ô |
| õ | ö | ÷ | ø | ú | ú | û | ü |
| ý | þ | ÿ | Ã | â | ã | ä | å |
| ä | ç | ç | é | ê | ê | ì | í |

# **Looping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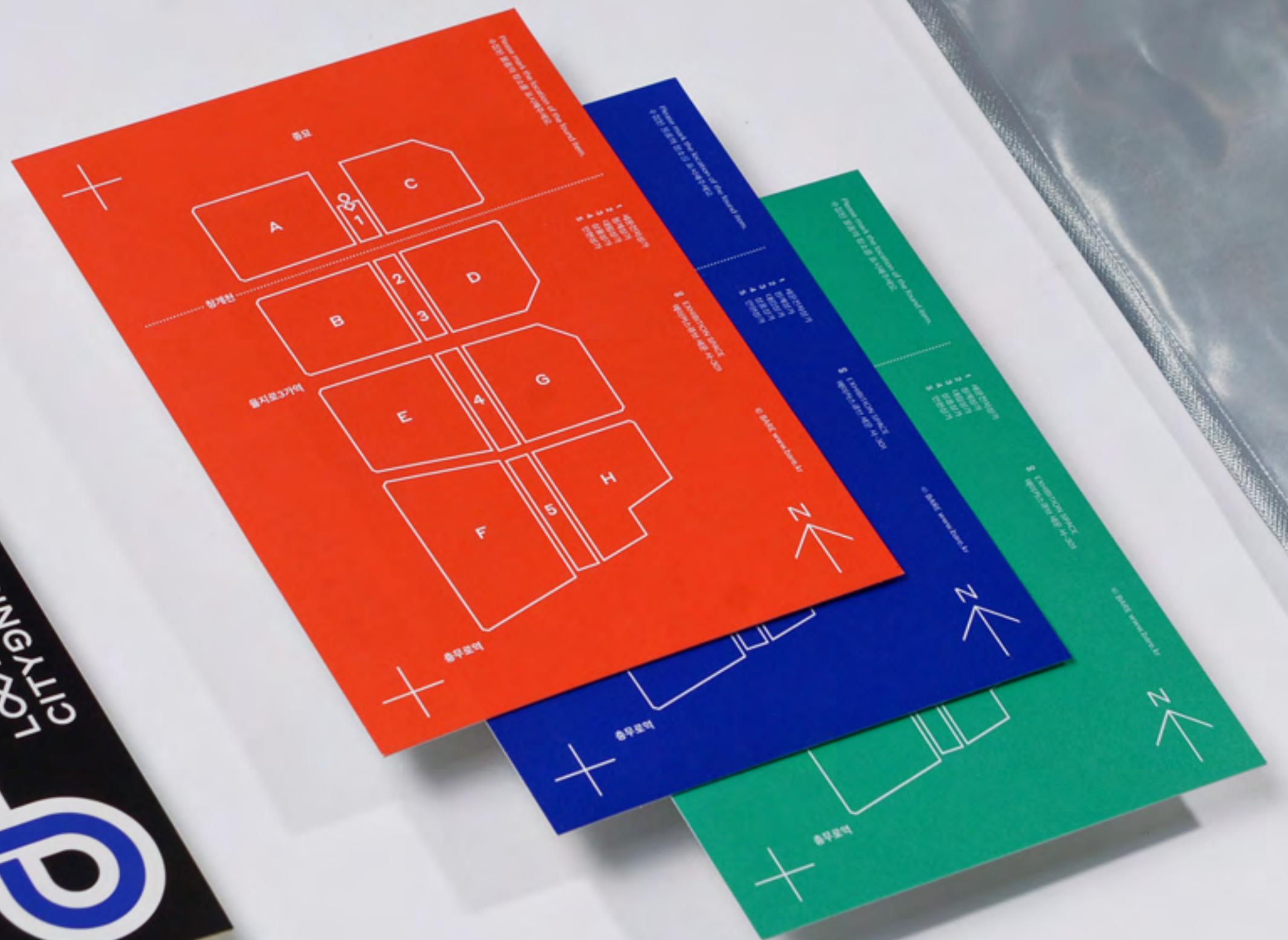
## **2017**

세운상가에서 열린 2017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 생산도시 전시에 선보인 건축  
스튜디오 바래 BARE의 Looping City  
프로젝트 그래픽 디자인 작업



2017

Looping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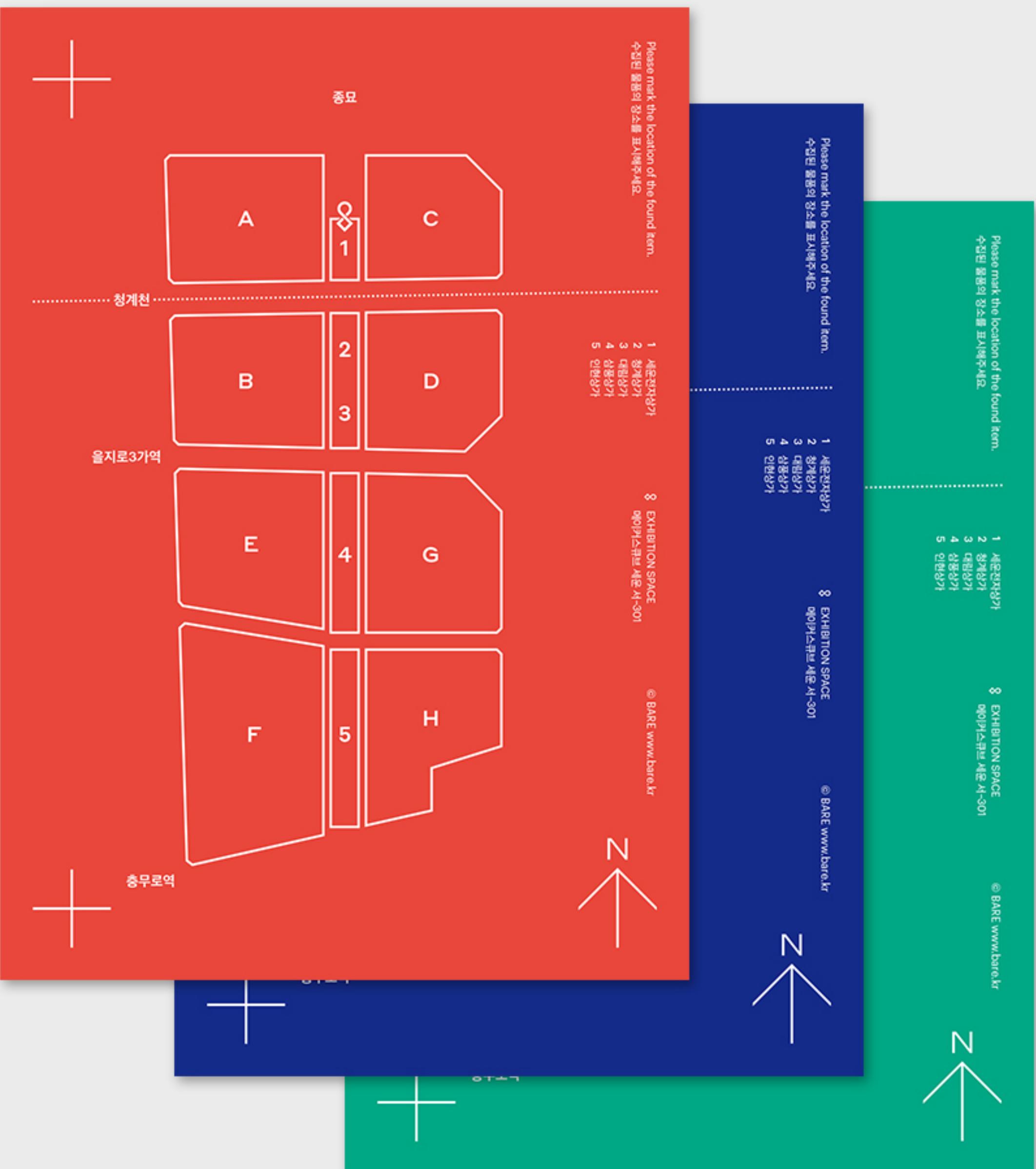
Looping City 스티커 엽서 패키지

1 of 3

| NO.  | Date & Time<br>날짜와 시간                                   |
|--|---|
| Items<br>물품  | Materials<br>재료   |
| Location / Specific spots where you found it<br>장소 / 상가, 거리 이름           |   |
| PLEASE MARK ON THE MAP OVERLEAF. 및 장 지도에 표시해주세요.                         |   |
| Please tell us why you think this has a value.<br>수집된 물품에 담긴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   |
| Collector's Name<br>수집가 이름   | Collector's E-mail or Phone No.<br>수집가 연락처 / 이메일 또는 핸드폰 |

**LOOPING CITY**

Please collect items/stories that you think are VALUABLE and return here to Exhibition Space with this postcard. Selected participants' items/stories will be exhibited in one of the LOBES and will receive a copy of the [Production City] Pub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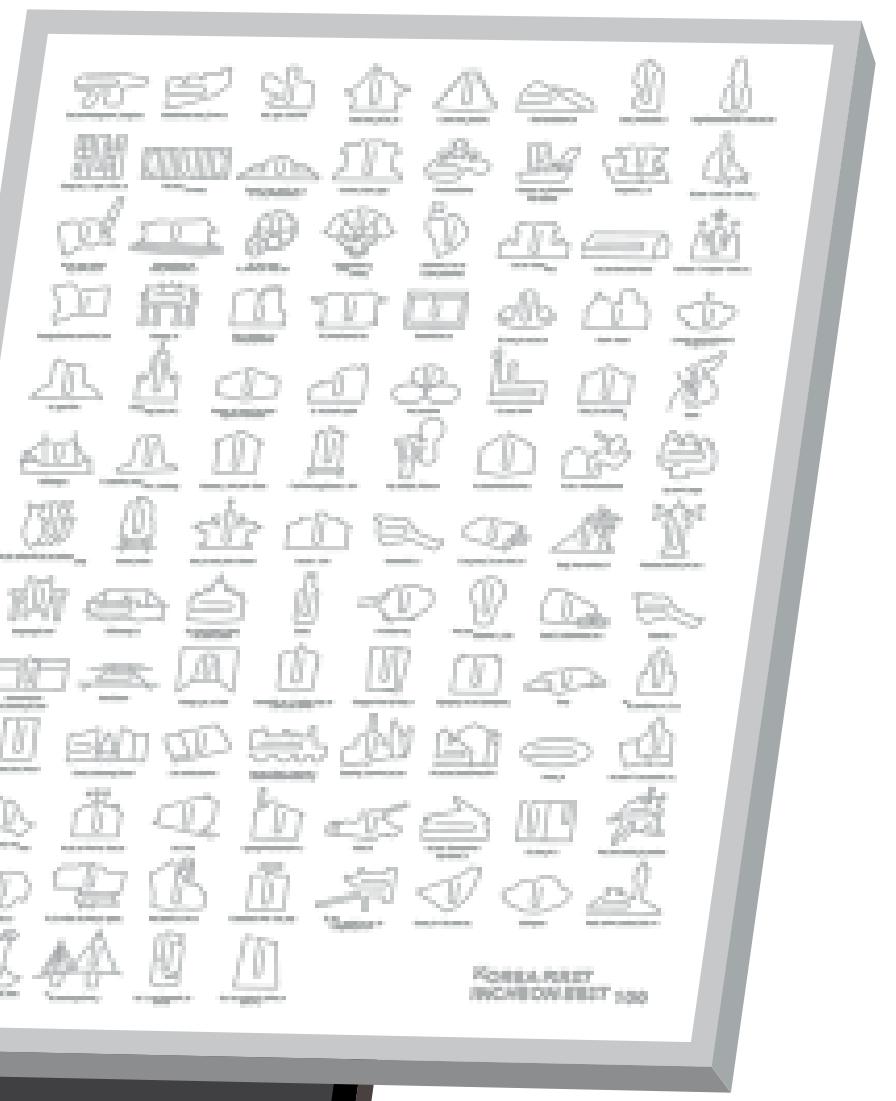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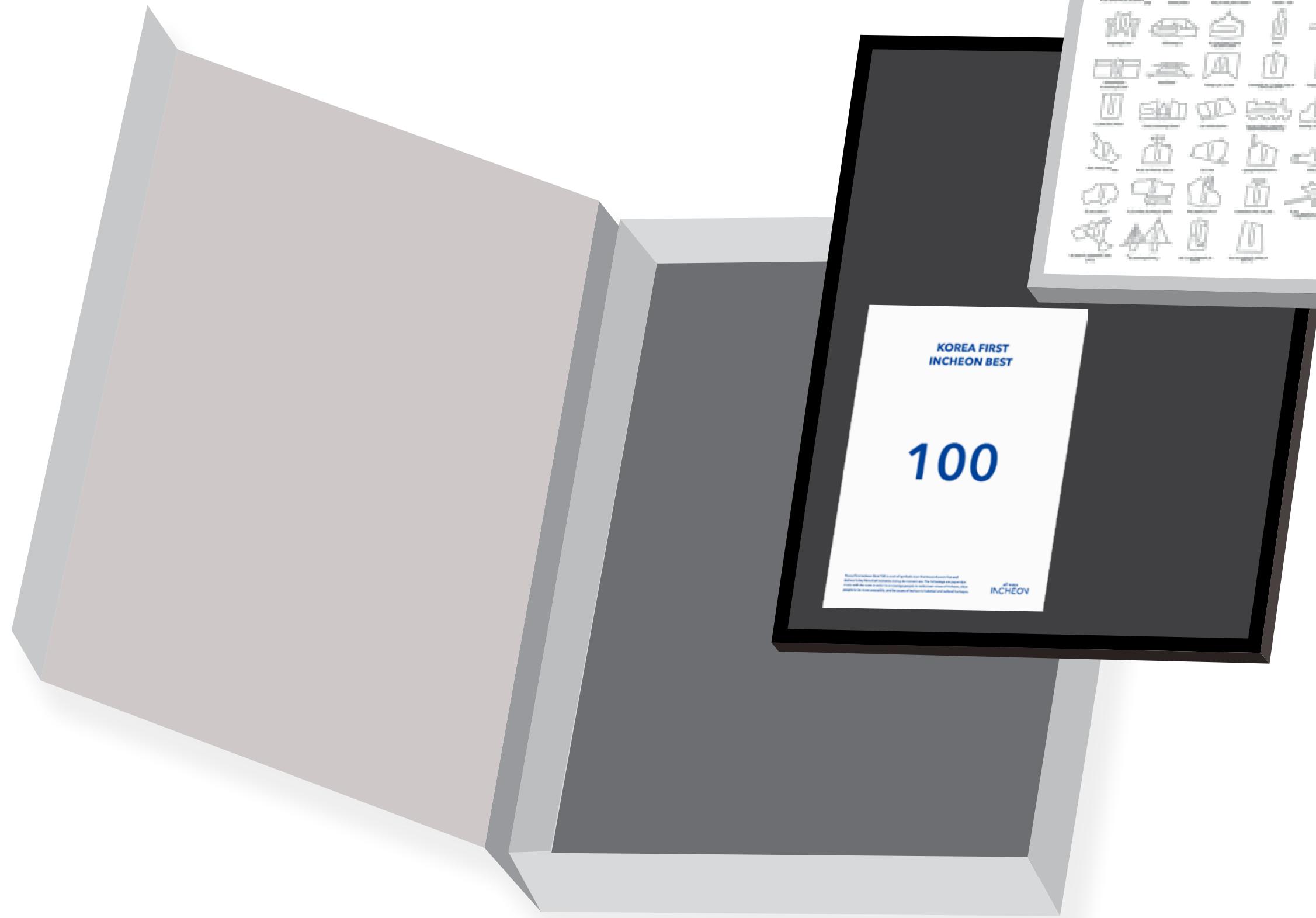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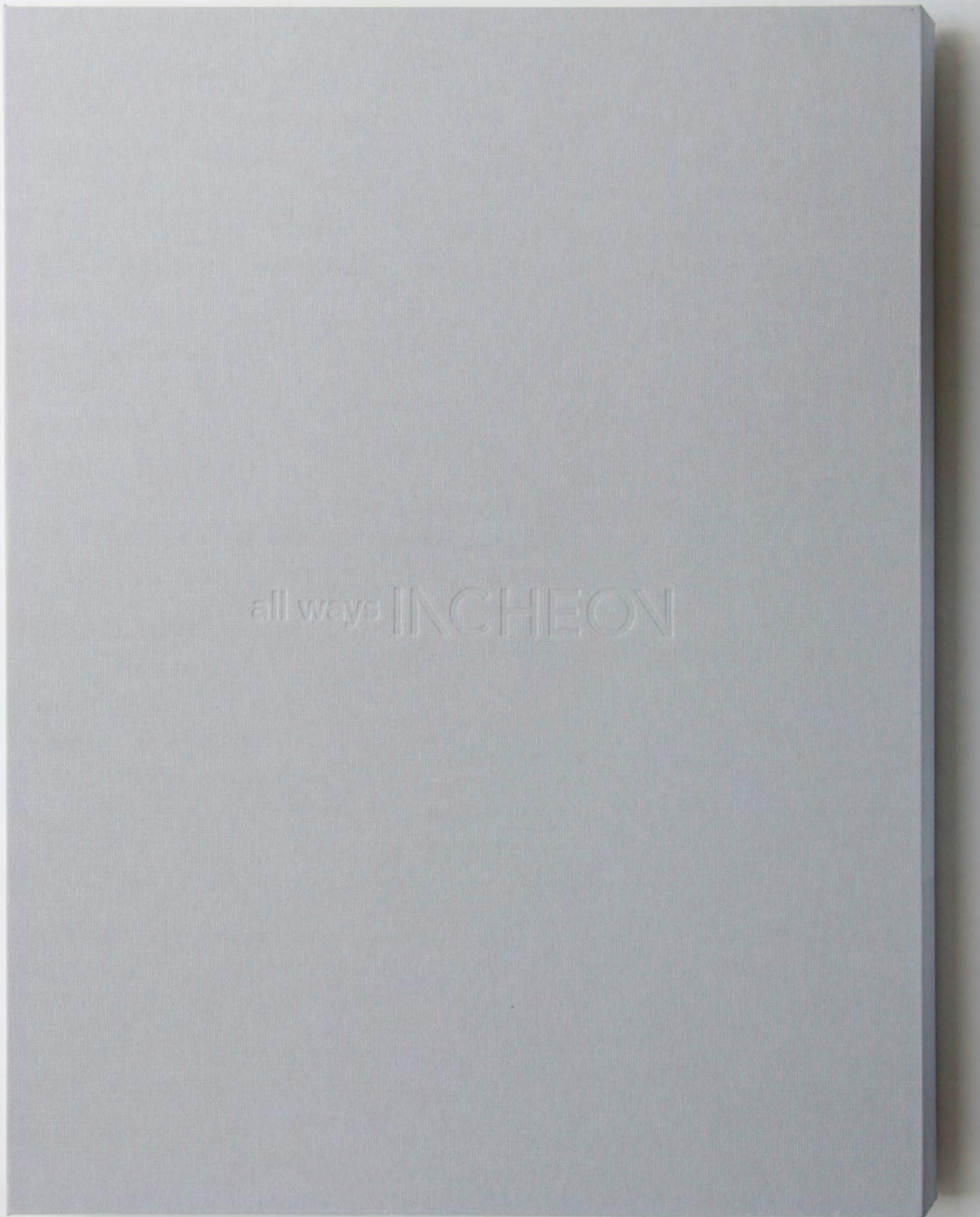


# **한국최초 인천최고 100선 VIP KIT**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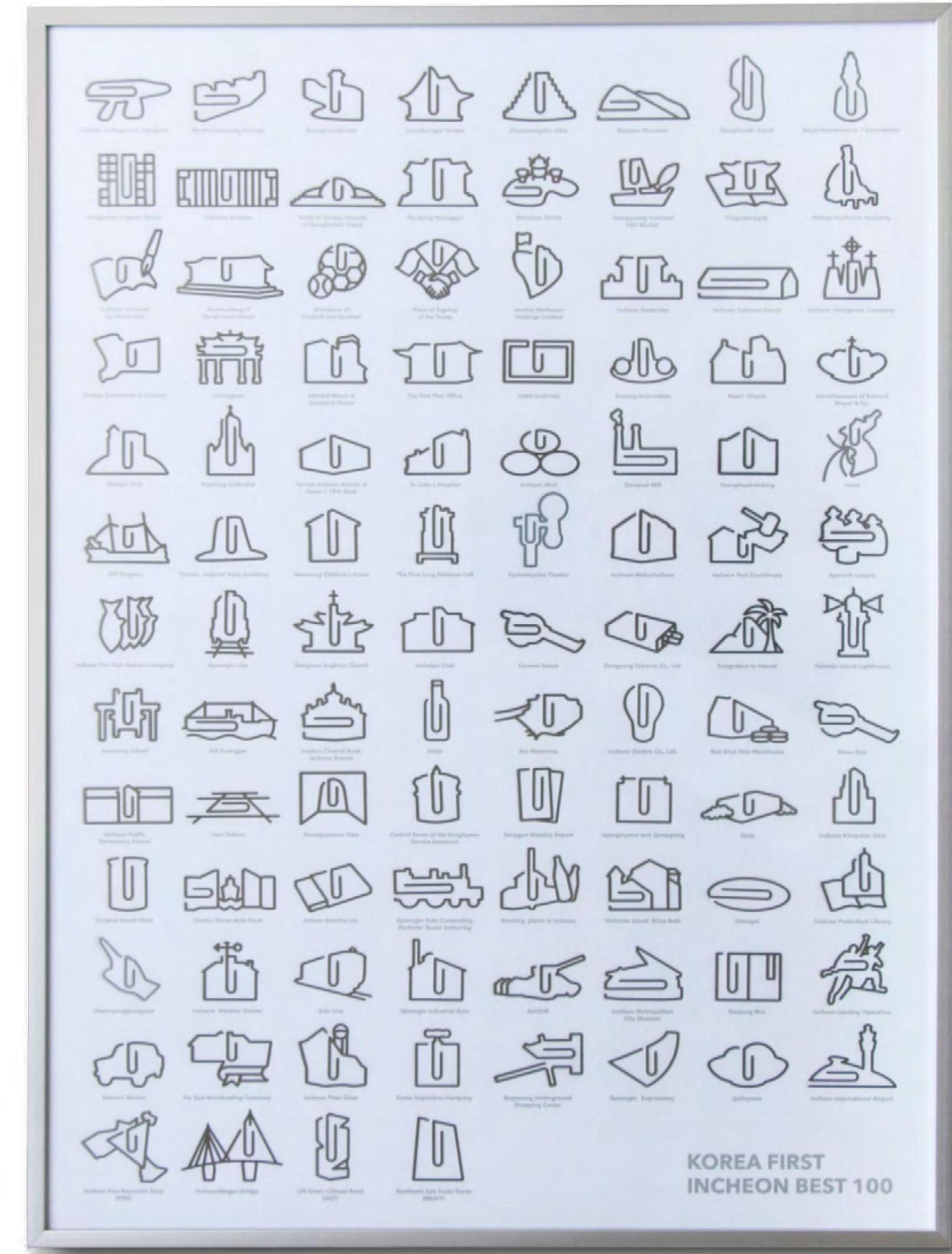
인천 고유의 가치와 대표 역사문화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만날 수 있도록하고자 개발한 100개의  
아이콘을 클립으로 제작하여 액자에 고정한 키트로  
총 50판만 생산한 VIP용 상품이다.





한국최초 인천최고 100선 VIP KIT

2018



VIP KIT 외관박스와 액자

2 of 3



KOREA FIRST  
INCHEON BEST

100

all ways  
INCHEON

한국최초 인천최고 100선은 근현대 시기 인천 지역의 역사 문화 속에서 한국 최초이자 인천 최고가 되는 사실들을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함께 정리한 상징아이콘입니다. 본 상품은 위 상징 아이콘을 결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천의 문화유산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all ways  
INCHEON



# PRUGIO Logo Renewal

## 2018

세련된 자연스러움이란 브랜드 리뉴얼 키워드를  
시작으로 식물의 자연스러운 곡선과 꺾임을 서체에  
녹여 새로운 영문 워드마크를 개발했다.

\* 초기 컨셉 방향 주도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추후 최종 로고는 시공에 대한 이슈로 수정되었다.

# PRUGIO



**G**  
**U**  
**U**  
**U**  
**U**



# Prugio Logo Renewal

2018

# 디자인 스케치

# **From X to Z: Generations in Dialogue 2019**

주한독일문화원, 코리아 엑스포제,  
주한프랑스문화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X부터 Z까지, 세대 간 대화] 심포지엄  
그래픽 아이덴티티 및 포스터 디자인

# From X to Z: Generations in Dialogue

X부터 Z까지:  
세대 간 대화

5.7–10,  
2019

Panel Discussions  
페널 토론  
English/Korean wit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영어/한국어 동시통역

Dinner Conversation  
디너 테이블토크  
English/Korean/German/French  
영어/한국어/독일어/프랑스어

Online registration required  
온라인 참가신청 필수

Institut Français de Corée du sud  
주한프랑스문화원  
02.317.8564  
livredeb@institutfrancais-seoul.com  
www.institutfrancais-seoul.com

Goethe-Institut Korea  
주한독일문화원  
02.2021.2821  
pro@seoul.goethe.org  
www.goethe.de/korea

5.7

Digital  
Natives  
vs. Digital  
Immigrants  
디지털 네이티브  
vs. 디지털 이주민

5.9

Us in the  
World  
세계 속 우리

Goethe-Institut Seoul, Auditorium  
주한독일문화원, B1 강당  
19:30

5.8

The Value of  
Happiness  
행복의 가치

5.10

Dinner  
Conversation  
“Dialogue  
into action”  
디너 테이블토크:  
대화에서 행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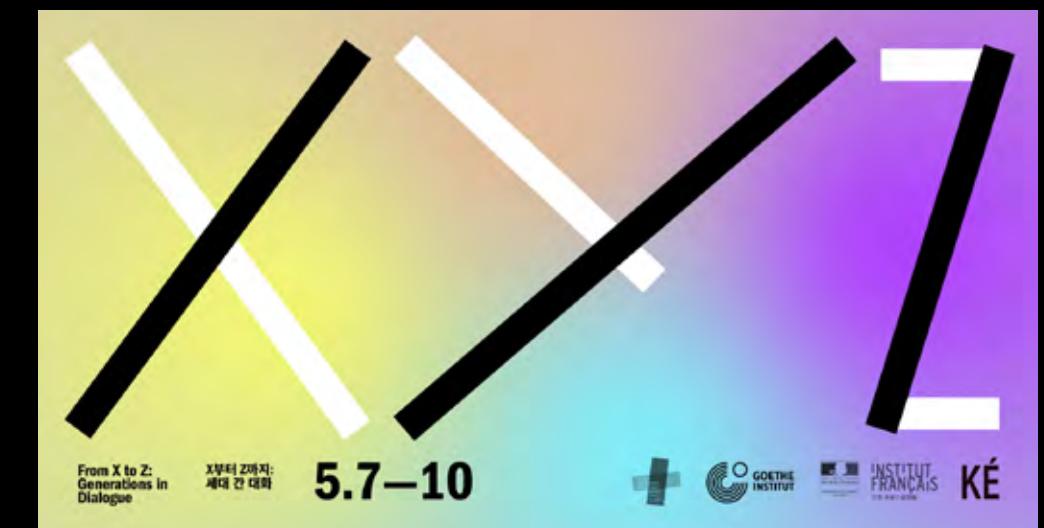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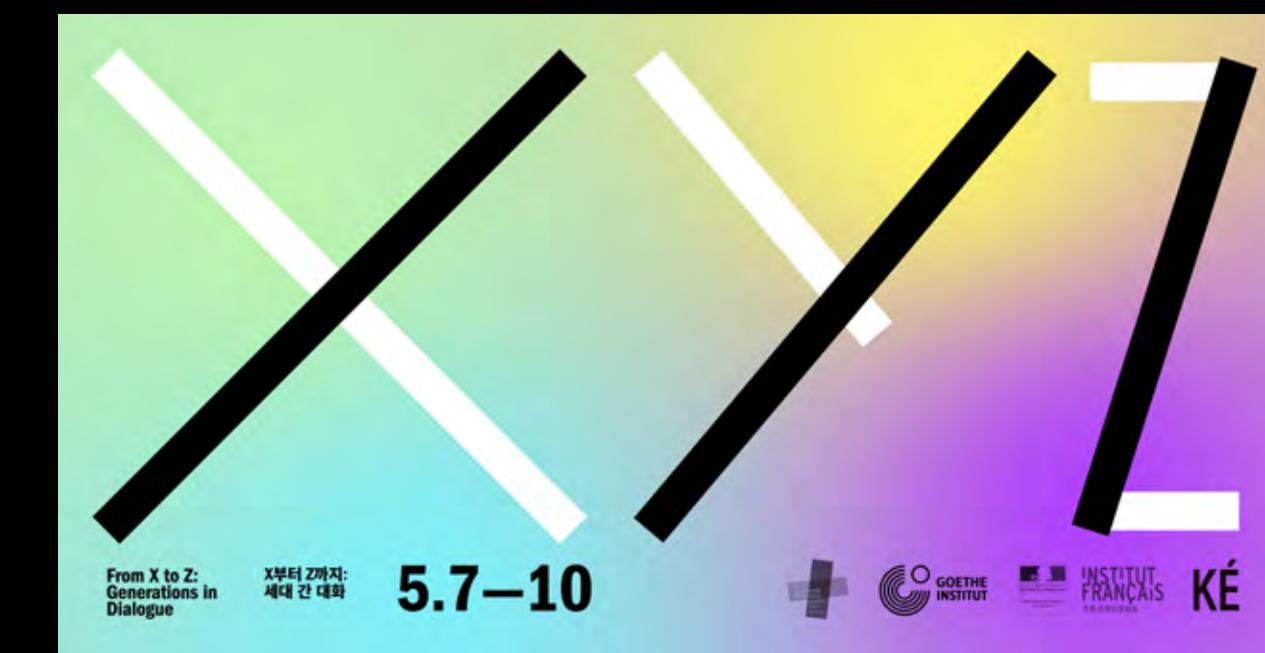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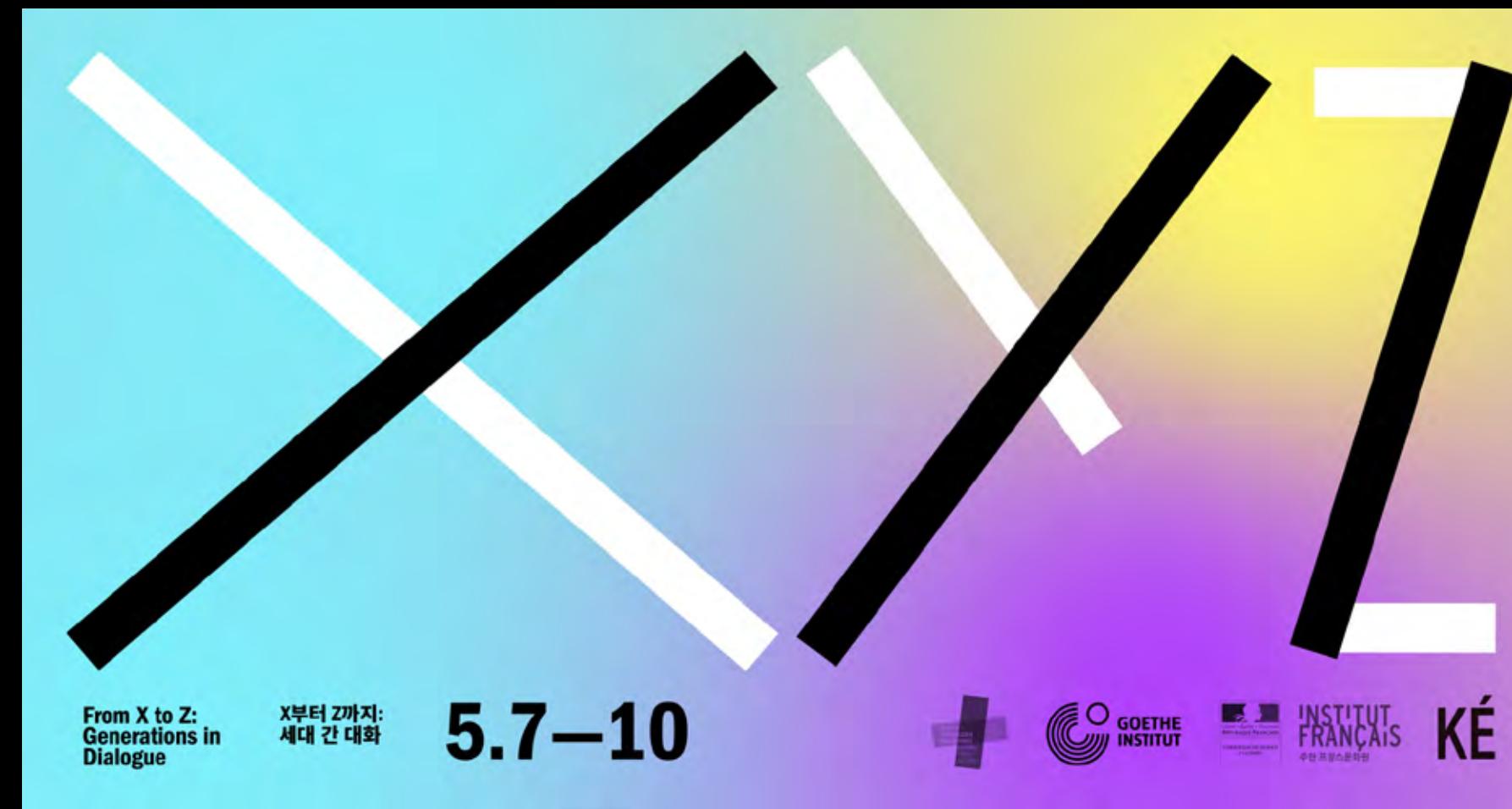
Korea Expo'6 B1  
코리아 엑스포제, B1  
19:30

Art Sonje Center, B1 Art Hall  
아트선재센터, B1 아트홀  
19:30

French Embassy in Korea  
주한프랑스대사관  
19:00









# 꼭 알아야 할 30명의 인문사회과학 작가

## 2019

2019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한 주한프랑스  
문화원에서 선정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들  
소개를 담은 리플렛

판형 130×210mm  
제본 중철제본  
페이지 총 44페이지

● Dominique Bourg ● Catherine  
Larrère ● Émilie Hache ● Michel  
Lussault ● François Jarrige ● Michel  
Agier ● Claire Rodier ● Catherine  
Wihtol de Wenden ● Isabelle Coutant  
● Dominique Rousseau ● François  
Dubet ● Gérard Bras ● Myriam  
Revault d'Allonnes ● Paulin Ismard  
● Achille Mbembe ● Felwine Sarr  
● Marie Duru-Bellat ● Geneviève  
Fraisse ● Mélanie Gourarier ● Corine  
Pelluchon ● Etienne Bimbenet ●  
Eric Baratay ● Florence Burgat  
● Antonio A. Casilli ● Catherine  
Malabou ● Stéphane Audoin-Rouzeau  
● Yves Citton ● Marielle Macé ●  
Françoise Lavocat ● François Hartog

2019년 주한 프랑스 문화원 선정

꼭 알아야 할 30명의 프랑코폰 인문사회과학 작가

30 auteurs francophones de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inédits  
en Corée du Sud / Sélection 2019 de l'Institut français de Corée du Sud

## Thèmes

주제

Enjeux environnementaux

환경



Frontières et migrations

국경과 이주



La démocratie et ses crises

민주주의와 그 위기



Postcolonialisme

포스트식민주의



Féminisme et études de genre

페미니즘과 젠더 연구



La condition animale

사회에서 동물의 위치



Le rapport homme-machine

인간과 기계



Littérature et écriture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문학과 인문사회과학 글쓰기



## Auteurs

작가

Dominique Bourg

Catherine Larrère

Émilie Hache

Michel Lussault

François Jarrige

Michel Agier

Claire Rodier

Catherine Wihtol de Wenden

Isabelle Coutant

Dominique Rousseau

François Dubet

Gérard Bras

Myriam Revault d'Allonnes

Paulin Ismaïd

Achille Mbembe

Felwine Sarr

Marie Duru-Bellat

Geneviève Fraisse

Mélanie Gourarier

Corine Pelluchon

Etienne Bimbenet

Eric Baratay

Florence Burgat

Antonio A. Casilli

Catherine Malabou

Stéphane Audoin-Rouzeau

Yves Citton

Marielle Macé

Françoise Lavocat

François Hartog

## Thèmes

주제

|   |
|---|
| Enjeux environnementaux<br>환경   |
| Frontières et migrations<br>국경과 이주  |
| La démocratie et ses crises<br>민주주의와 그 위기                                   |
| Postcolonialisme<br>포스트식민주의   |
| Féminisme et études de genre<br>페미니즘과 [젠더] 연구                               |
| La condition animale<br>사회에서 동물의 위치   |
| Le rapport homme-machine<br>인간과 기계  |
| Littérature et écriture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br>문학과 인문사회과학 글쓰기 |

## Auteurs

작가

|   |
|---|
| Dominique Bourg<br>Catherine Larrère<br>Émilie Hache<br>Michel Lussault<br>François Jarrige   |
| Michel Agier<br>Claire Rodier   |
| Catherine Wiltot de Wenden<br>Isabelle Coutant  |
| Dominique Rousseau<br>François Dubet<br>Gérard Bras<br>Myriam Revault d'Allonnes<br>Paulin Ismard<br>Achille Mbembe<br>Felwine Sarr   |
| Marie Duru-Bellat<br>Geneviève Fraisse<br>Mélanie Gourrier<br>Corine Pelluchon<br>Etienne Bimbenet<br>Eric Baratay<br>Florence Burgat |
| Antonio A. Casilli<br>Catherine Malabou   |
| Stéphane Audoin-Rouzeau<br>Yves Citton<br>Marielle Macé<br>Françoise Lavocat<br>François Hartog                                       |

## Introduction

서문

이엘 푸코, 피에르 부르디외, 자크 데리다,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 폴랑 바르트, 자크 라캉 등은 프랑스의 역사, 사회학, 철학, 인류학, 기호학, 심리분석학의 거장들이다. 자크 알시에르, 알랭 바니우, 에티엔 벨라미르, 장-뤽 낭시도 각자의 분야에 급격한 선을 그었다. 이를 식학이 프랑스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프랑스 사상의 황금기를 건설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 더 잘 알려져야 할 현대 프랑스어권 학자들이 있다.

이 소책자는 차세대 프랑스어권 저작가들을 소개하고 양준기 위해 간행되었다.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학문 분야가 아닌 환경, 국경과 이주,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과 젠더 연구, 사회에서 동물의 위치, 인간과 기계의 관계, 인문사회 과학과 문학적 글쓰기의 새로운 판례 등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선정한 30명의 작가들의 저서 중 2010년 이후 출간 된 최근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횡적 접근 방식은 학문 간 장벽을 허물고 현대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선택이었다.

마티우 포트-본느밀(Mathieu Potté-Bonneville)의 『프랑스의 인문 사회과학: 출판의 시작으로 본 트렌드와 화제(L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en France: tendances et actualités au prisme de l'édition, II/DLEFS, 2018)』라는 제목의 연구를 토대로 한 이번 신정이 모든 작가를 총망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중요 프랑스어권 작가중에서도 불가피하게 포함되지 못한 작가들도 많다. 문화원은 특히, 한국의 출판사들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대를 관통하는 문제에 용감히 임버든 프랑스 작가의 저서를 번역, 출간하는 모험에 뛰어들기를 바라며, 한국에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작가를 중심으로 신정하였다.

## Enjeux environnementaux 환경

### Le rapport homme-machine 인간과 기계



### Antonio A. Casilli

안토니오 카실리

안토니오 카실리는 사회학자로 엘레컴 파리테크 연구 교수이자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LACI-HIAC의 준연구원이다. 디지털 노동 유럽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n Digital Labour, ENDL)의 공동 창설자이며, 저서로 『디지털 관계(Les liaisons numériques, Seuil, 2010)』와 도미니크 카르동(Dominique Cardon)과 공동 집필한 『디지털 노동이란 무엇인가? (Qu'est-ce que le digital labor?, INA, 2015)』가 있다.

『로봇을 기다리며. 클릭 노동이란 무엇인가  
En attendant les robots. Enquête sur le travail du clic』  
Seuil | 2019 | 400p

인공지능 출현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곧 일어나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속곳처럼 짐베르는 듯한 예언이 조금 더 현실적으론 나가왔다. 누군가를 불안해 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러한 '디지털 풍토'에서 향수와 개방, 공유를 기반으로하는 혁명이라는 기회를 본다. 이러한 실 없는 마리오네트 인형극의 무대 위에는 또 다른 불기리가 있다. 먼저, 기대 웹 기업의 돈벌이가 되는 개인정보와 경조직 콘텐츠를 SNS에 제공하는 유저들이 있다. 또한 힙합 경계 스타트업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동차를 몰거나 사람들을 보조하기 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정보 흐름을 만들어 내며 일상 대부분을 보낸다. 또 다른 한계에는 깊이나 퍼세포에서 점유하여 달라붙어 브랜드의 바이럴리티(virality)를 증폭시키고, 인터넷 사이트의 패러디를 늘리고, 쪽지적이거나 포르노그래픽인 이미지를 유통시키거나 텍스트의 부분들을 인식적으로 일련하여 자동번역 소프트웨어를 활용시키는 '마이크로 노동자'도 있다.

안토니오 카실리는 지적 자동화와 디지털 경제 활동인의 독립이라는 이중 환상을 해소하고, '인공'지능의 '작은 노동자' 작위라는 현실을 드러낸다. 이 작은 노동자들은 바로 인간노동을 재형성하고 불안하게 하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경영에 종속된 산업의 꽂판이 하청노동자다.

### Stéphane Audoin-Rouzeau

스테파ן 오두昂-루조



스테파ן 오두昂-루조는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의 연구원장이며, 제2차 세계대전 역사관 국제 연구센터 대표다. 주요 저서로 『어떤 역사. 혈통에 대한 이야기 1914-2014(Quelle histoire. Un récit de filiation (1914-2014), Seuil, 2013)』, 『맞서 싸우다. 현대진쟁의 역사 인류학(Combattre. Une anthropologie historique de la guerre moderne, Seuil, 2008)』가 있다.

『시작. 르완다 (1994-2016) Une initiation. Rwanda (1994-2016)』  
Seuil | 2017 | 176p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초부터 오로지 전쟁의 폭력성 연구에 바친 내 연구 인생 30년 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주제'가 내 길을 막아섰다. 후에 그 '주제'가 바로 1994년 4월과 7월 사이 발생한 르완다 두치족의 집단학살이었음을 알아차렸다. 이 집단학살로 인해 3개월 만에 80만 명이 사망하였다. 역사학자 스테파ן 오두昂-루조는 르완다 투족족 학살 다툼다. 이 사건에 직면한 저자는 온몸이 산산히 조각날 듯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2008년부터 시작된 저자의 르완다 이행 이야기자 학살 생존자들과의 만남 이야기 그리고 세 가지 주제 즉, 투족족 학살 진실과 학살 중 프랑스의 역할, 이후지간의 폭력성, 집단학살의 잔인성을 등장하여 종교가 친설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이다.

『관심의 생태학 Pour une écologie de l'attention』  
Seuil | 2014 | 320p

이브 시통은 그로노를 대학의 문학 교수이며 메가진(Multitudes)의 공동 대표다. 주요 저서로 『참을 수 없는 것은 태도하다(Reverser l'insoutenable, Seuil, 2012)』가 있고 『관심의 생태학. 자본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까? (L'Economie de l'attention. Nouvel horizon du capitalisme?, La Découverte, 2014)』를 공동 집필했다.

『관심의 생태학 Pour une écologie de l'attention』  
Seuil | 2014 | 320p

문지와 소리, 스코프에 거의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학가들은 '관심의 경계'이라는 새로운 경계학이 기준의 물질 경계를 알지 못하더라도 예고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회소설은 우리와 재한된 수용 능력에 있다. 그 할 수 있다.

이 책은 현대의 서재적인 단서에 대한 흥미적인 미전을 제시한다. 경제분석과 교육적 관심사, 윤리적 고찰, 정치적 투쟁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요구에는 것은 미량한 일이다. 하지만 디서틴 가슴의 도래가 우리의 주의를 끌어 빼지도 않고 살피기 어렵다. 각자가 좀 더 경쟁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의를 끌 수 있는 자원을 꾀하는 면을 배워야 할까? 아니면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영역을 위협하는 도전에게도 좀 더 관심기술이어야 할까? 이 책은 두 번째 방법을��한다. 이 책은 우리로 찾는다. 과도한 활동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관심의 생태학의 기초를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 **녹색상담소**

## **2019**

생태환경문화 월간지 작은것이 아름답다 독자들과  
시민들이 보내온 환경을 지키는 질문들과 답을 엮은  
'녹색상담소' 단행본 디자인

녹색상담소



작은것이 아름답다 예음

잘 때, 외출할 때는 일회용을, 집에서 생활할 때는 천기저귀를 병행해 쓰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리고 세탁이 어려우시면 믿을 만한 천기저귀 세탁 배송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회용 기저귀 구입비용보다 훨씬 싸고 아기 건강과 환경에 이로운 실천입니다. ●

이지현

재단법인 숲과 나눔 사무처장

## 유통기한 꼭 지켜야 하나요?

1-3



유통기한 꼭 지켜야 하나요?

23

## 어떻게 바꿀까요?



늘인다고 했으나 여전히 염화칼슘과 소금에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멀리 보면 당장의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정부와 시민 모두 공감하면서 제설기준을 정하고, 무엇보다 일부러 눈을 도로에서 녹이느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환경오염이 없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작은것이 아름답다

교배나 교잡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세대가 불임이 됩니다. 종자개량도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죠. 교배나 교잡이 가능한 단위 안에서 만듭니다. 때로 돌연변이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유전자조작은 이 ‘과’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생물학으로 불가능한 것을 사람이 조작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미생물 가운데 비티균(Bt)은 해충 애벌레를 죽게 만듭니다. 유기농에서 미생물농약으로 많이 쓰이죠. 이 균이 애벌레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균 유전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만을 뽑아내 콩, 옥수수, 유채, 면화 같은 것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농작물도 벌레를 죽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살충성 지엠오’입니다. 미생물과 식물이 생물의 ‘과’ 단위를 넘어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양한 지엠오가 만들어지는데, 사람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전한지는 증명되지 않아 두려운 겁니다. ●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

얼마 전 청주 외곽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에 웬 쓰레기가 이리도 많이 쌓이는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직접 보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자원화시설이란 명칭은 붙었지만 자원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잘못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야 하는지… 이미 침출수 해양투기도 금지되는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기계로 비틀어 물기를 짜내고 있더군요. 고스란히 물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쓰레기 처리 시설과 기계를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닐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 자연순환정책이 왜 실행 안 되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구인

!

음식물이 쓰레기가 되는 과정은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생활 식습관과 음식문화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인식과 가치가 두텁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으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규제와 순환체계가 없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사료로 쓰는 방법, 퇴비로 만드는 방법,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간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곧바로 사료로 쓸 수 있지만,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는 부패된 경우가 많아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가공하는 공정을 보면 크게 비닐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 물기를 짜내는 공정, 건조나 발효 같이 이용목적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이 구분됩니다.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까지 같이 버리는 경우도 많아 이런 이물질들은 걸러내어야만 합니다.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압력밥솥까지 섞여 들어온 경우도 봤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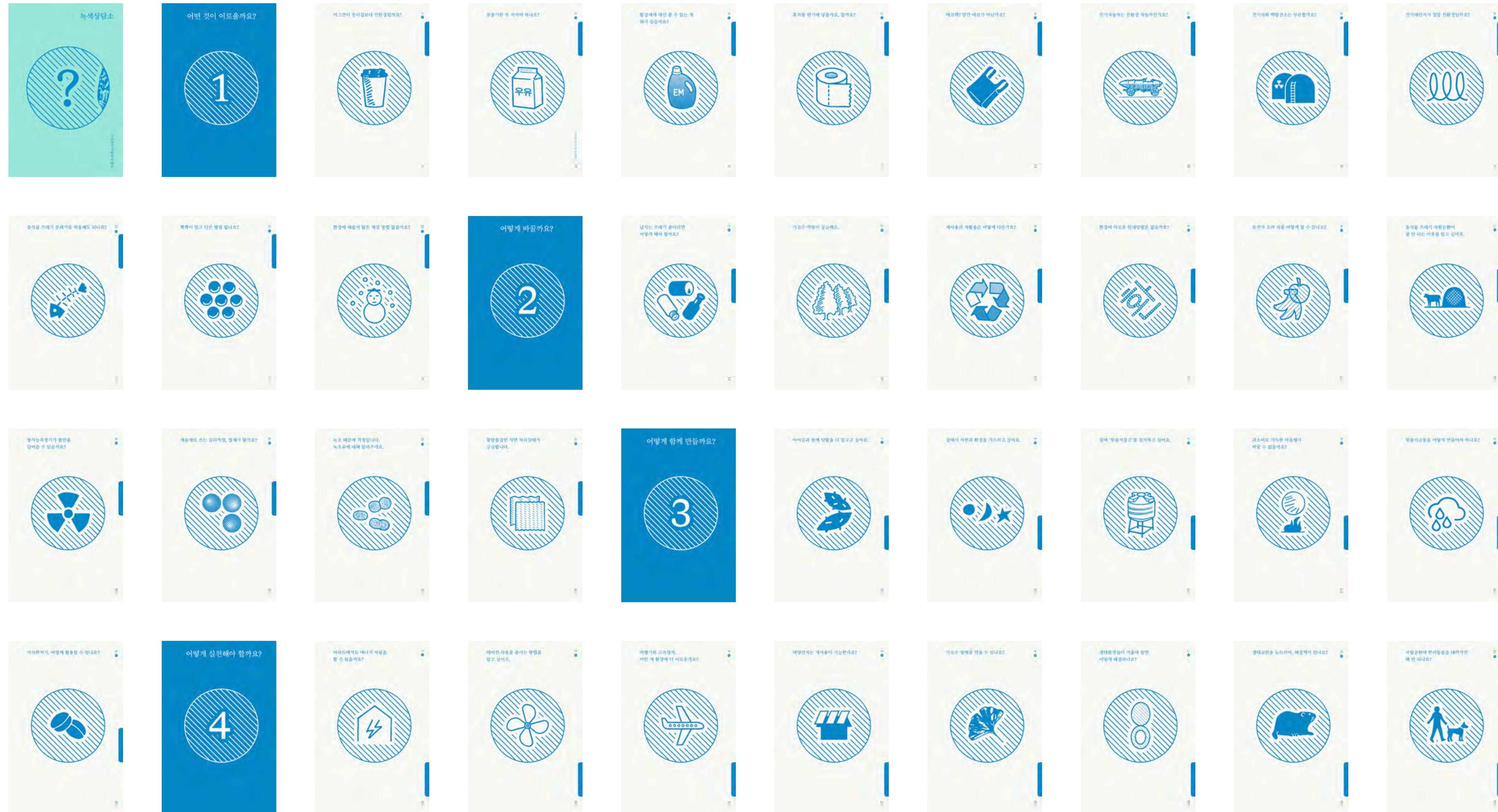
2-7

물기를 짜내는 '탈수공정'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에는 평균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정도로 수분이 많은 탓에 효율 있는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125





#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보고서

## 2018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NPO지원센터  
주요 소셜미디어 채널인 뉴스레터, 페이스북,  
블로그, 아카이브의 통계 현황을 나타낸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웹사이트 디자인

[snpo.kr/sns\\_2018](http://snpo.kr/sns_2018)

2013—  
2018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 보고서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여러 채널을 통  
해 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과 NPO 현장  
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NPO 영역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나 공  
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만  
들어온 사회 변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센터가 가진 채널을 활용해왔어요.

이곳에서는 센터의 주요 채널인  
[뉴스레터](#) [페이스북](#) [블로그](#) [아카이브](#)의  
통계현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통계  
수치로 센터를 만나보세요.

뉴스레터 ○  
페이스북 ○  
블로그 ○  
아카이브 ○



2013—  
2018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 보고서

뉴스레터

1 / 6

숫자로 보는 데이터

뉴스레터 구독자수 그래프

오픈율 증감 그래프

가장 인기있었던 뉴스레터 Top 3

2018 뉴스레터 특징

센터 뉴스레터 구독하기

센터의 한 달 살이가 궁금하다면, 뉴스레터를 주목해주세요. 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월 단위로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센터 행사 는 물론, NPO 영역의 다양한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2014년 4월 3일 센터는 첫 뉴스레터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메일발송 서비스로는 오즈메일러를 이용하다 2016년에 메일침프를 2019년부터는 스티비를 쓸니다.

2013—  
2018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 보고서

6 / 6

2018 뉴스레터 특징

---

세부 내용을 콘텐츠별로 소개해 클릭을 유도했어요.

---

센터 구성원들의 에디터 노트와 그달의 사진을 넣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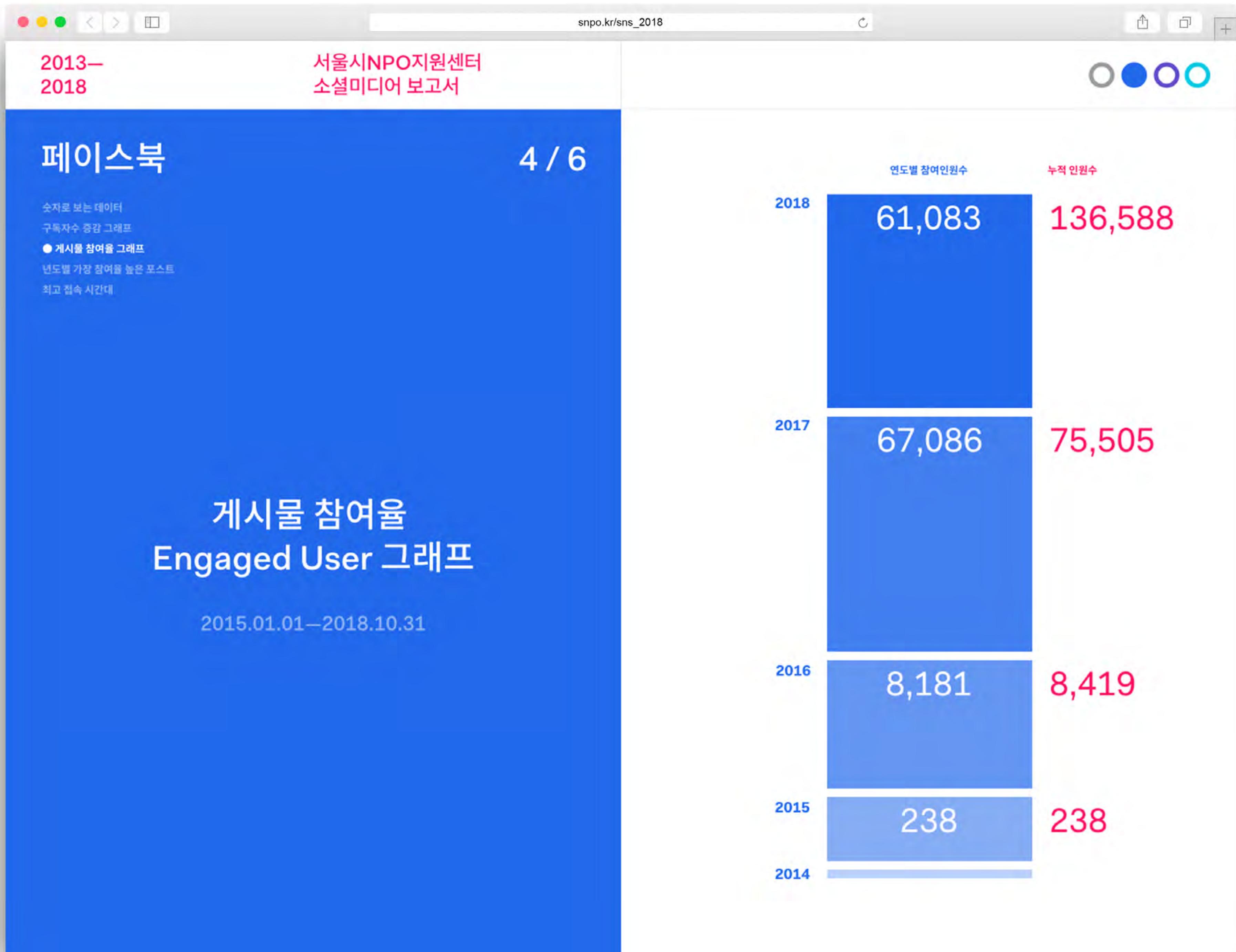
---

그달의 NPO소식과 신규 아카이브 자료를 빠짐 없이 실었어요.

---

추천하고 싶은 비영리 단체 뉴스레터 1위!  
(2018년 6월 센터 뉴스레터 구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of 7



2013—  
2018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 보고서

블로그

2 / 6

● 숫자로 보는 데이터

콘텐츠수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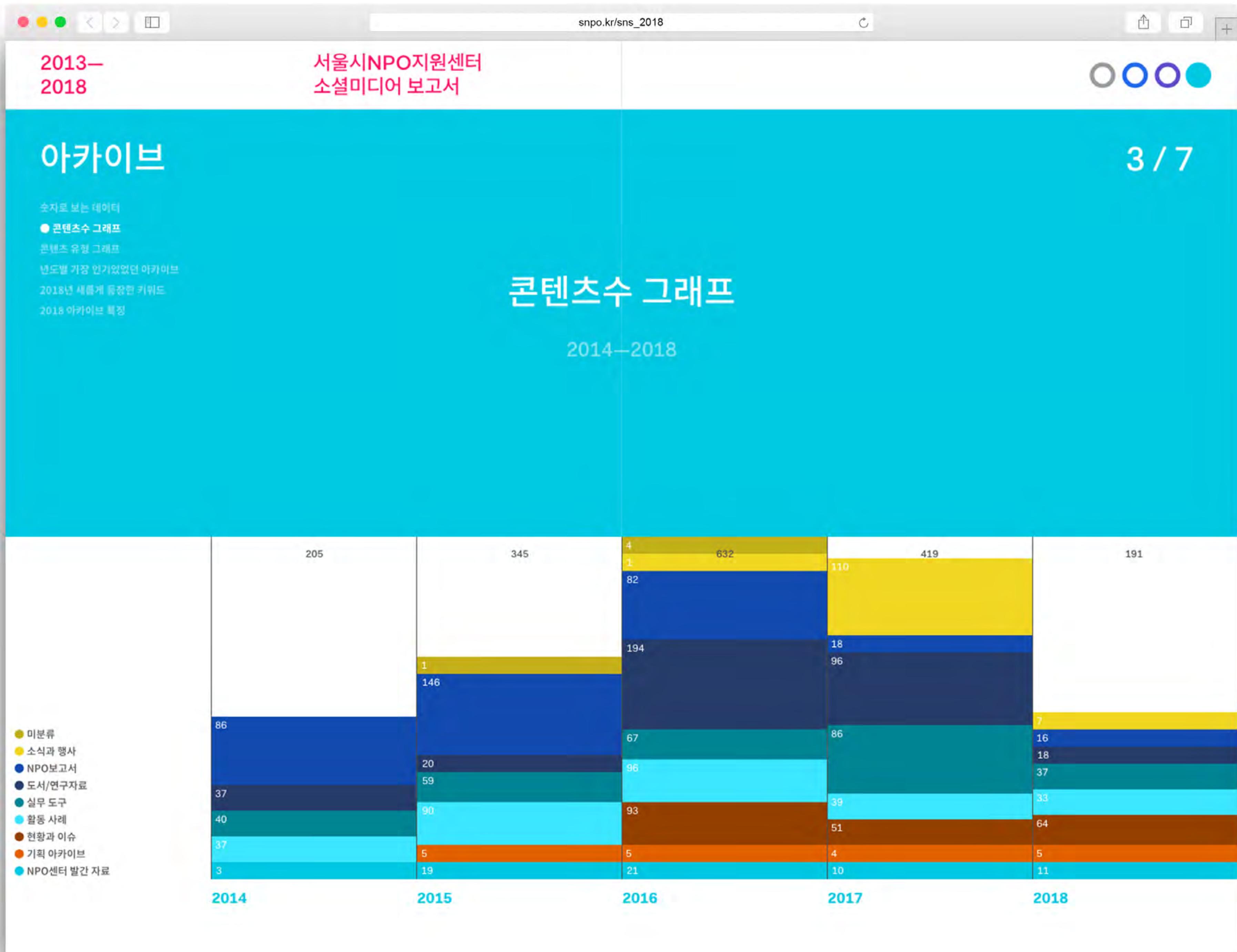
월별 조회수 그래프

년도별 가장 인기있었던 블로그 포스트

검색어 순위

## 숫자로 보는 데이터

|   |   |
|---|---|
| 방문자수<br><b>157,711</b><br>2016.1.1~2018.10.31<br>기준 | 연령대<br><b>25—29</b><br>2016.1.1~2018.10.31<br>기준  |
| 남:여 비율<br><b>32:68</b><br>2016.1.1~2018.10.31<br>기준 | 콘텐츠 개수<br><b>401</b><br>2016.1.1~2018.10.31<br>기준 |





# AG훈민정음체 포스터제

## 2018

AG훈민정음체의 꽃 본연의 형태적 가치와  
가능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조희〉는 현대어로 ‘종이’를 뜻한다.  
훈민정음체가 가지고 있는 자음, 모음의  
기하학적 조형 요소를 보여줌으로써  
글자 본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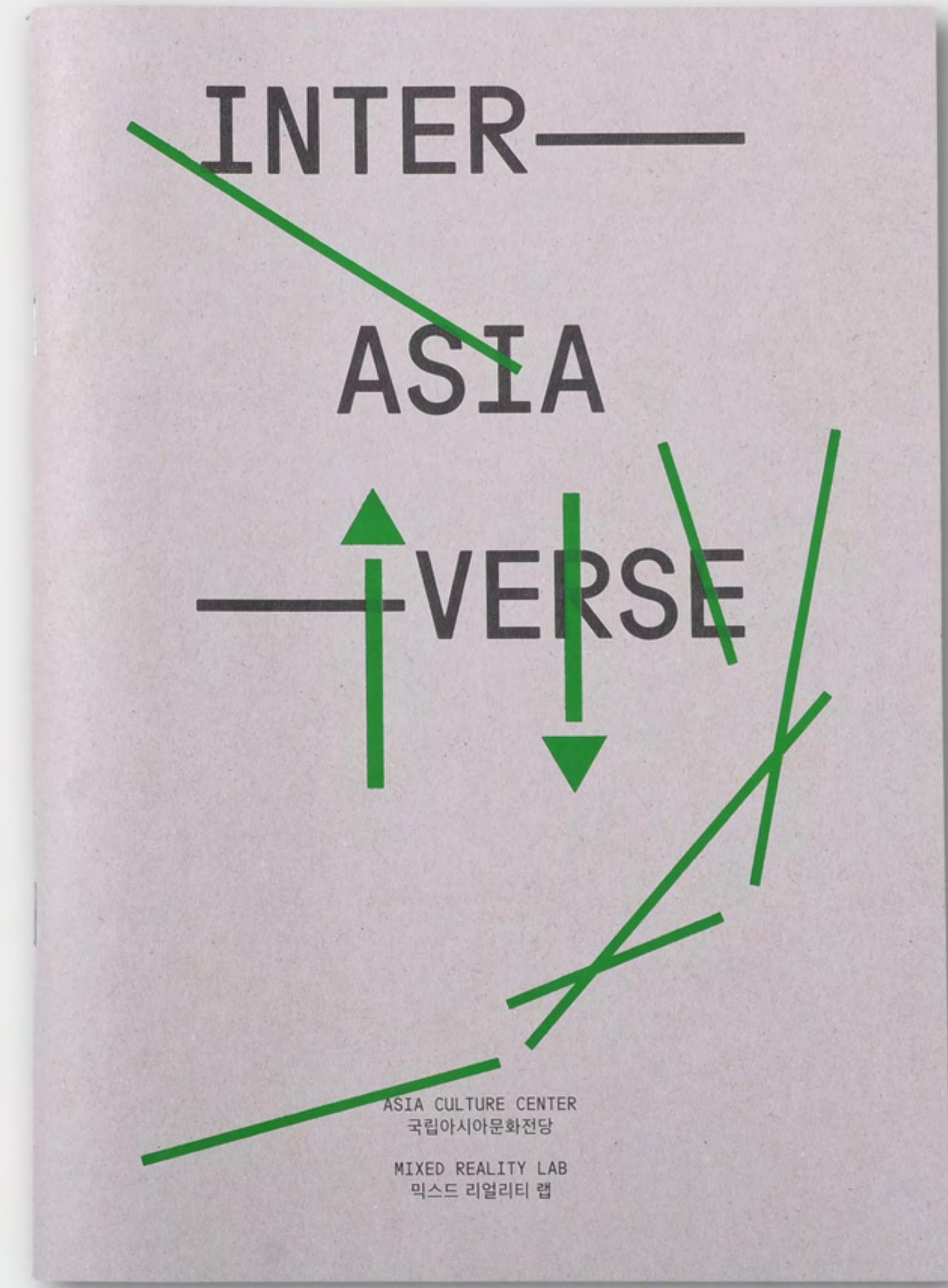
엽서용 디자인

2 of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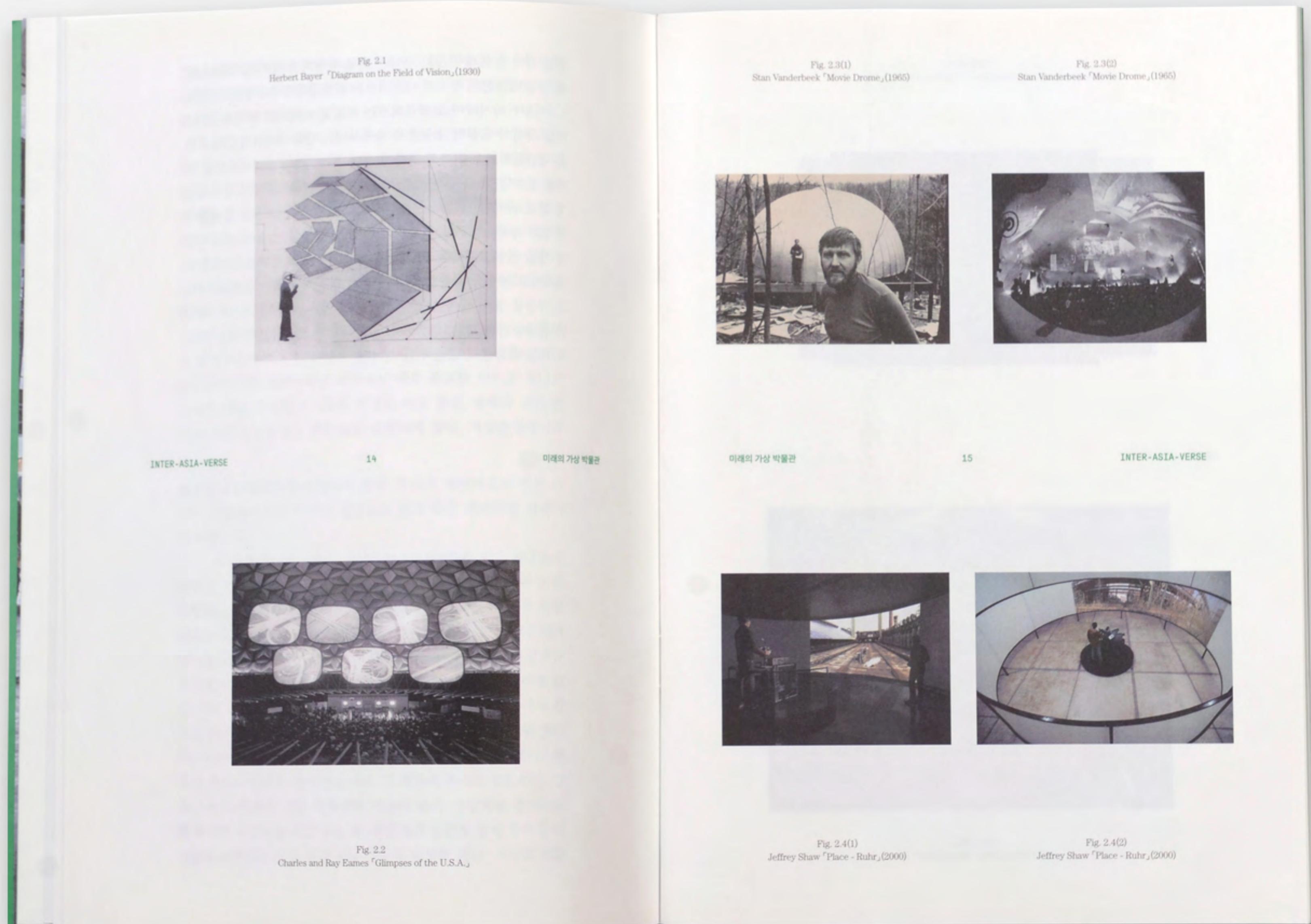
# Inter-Asia-Ver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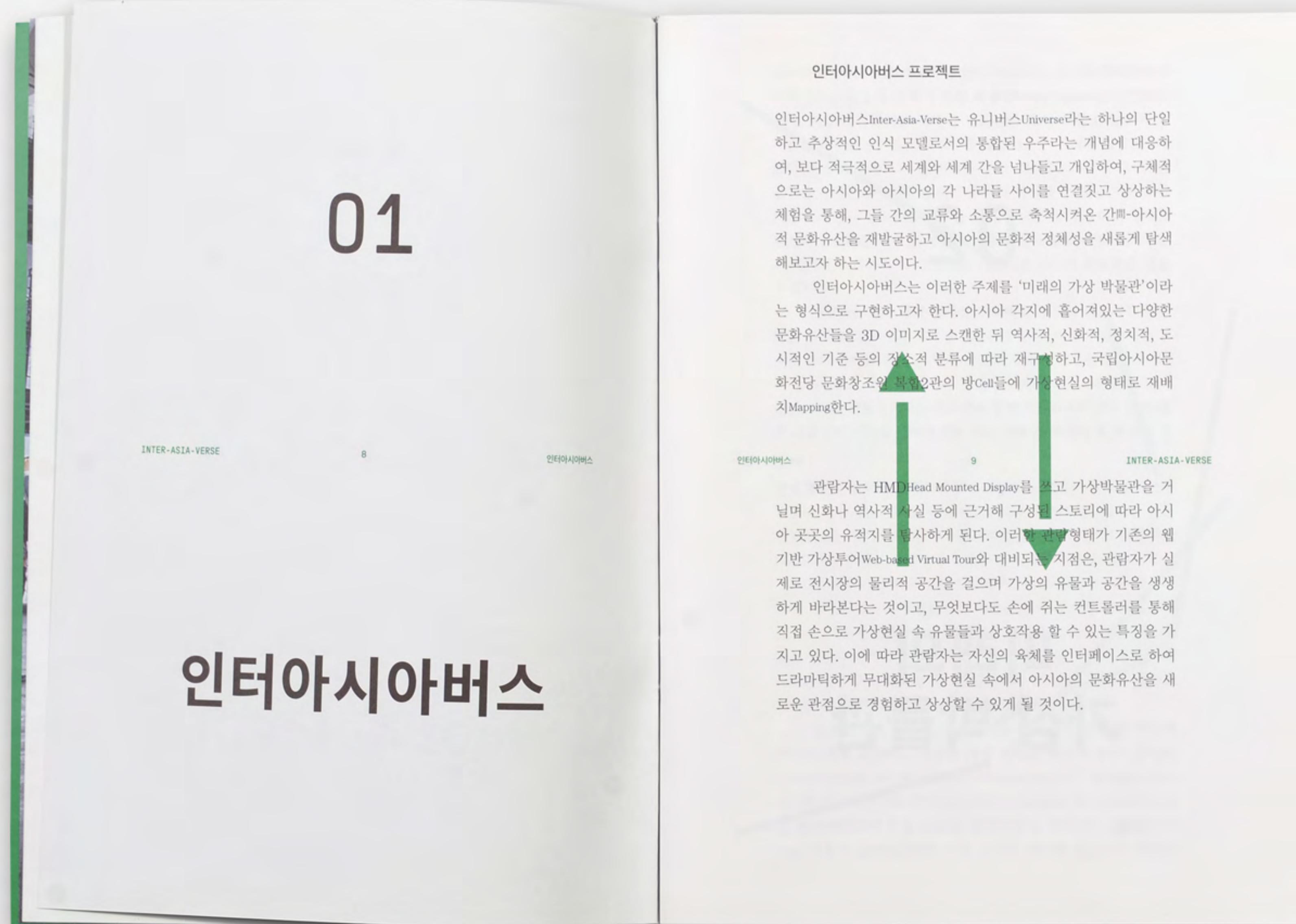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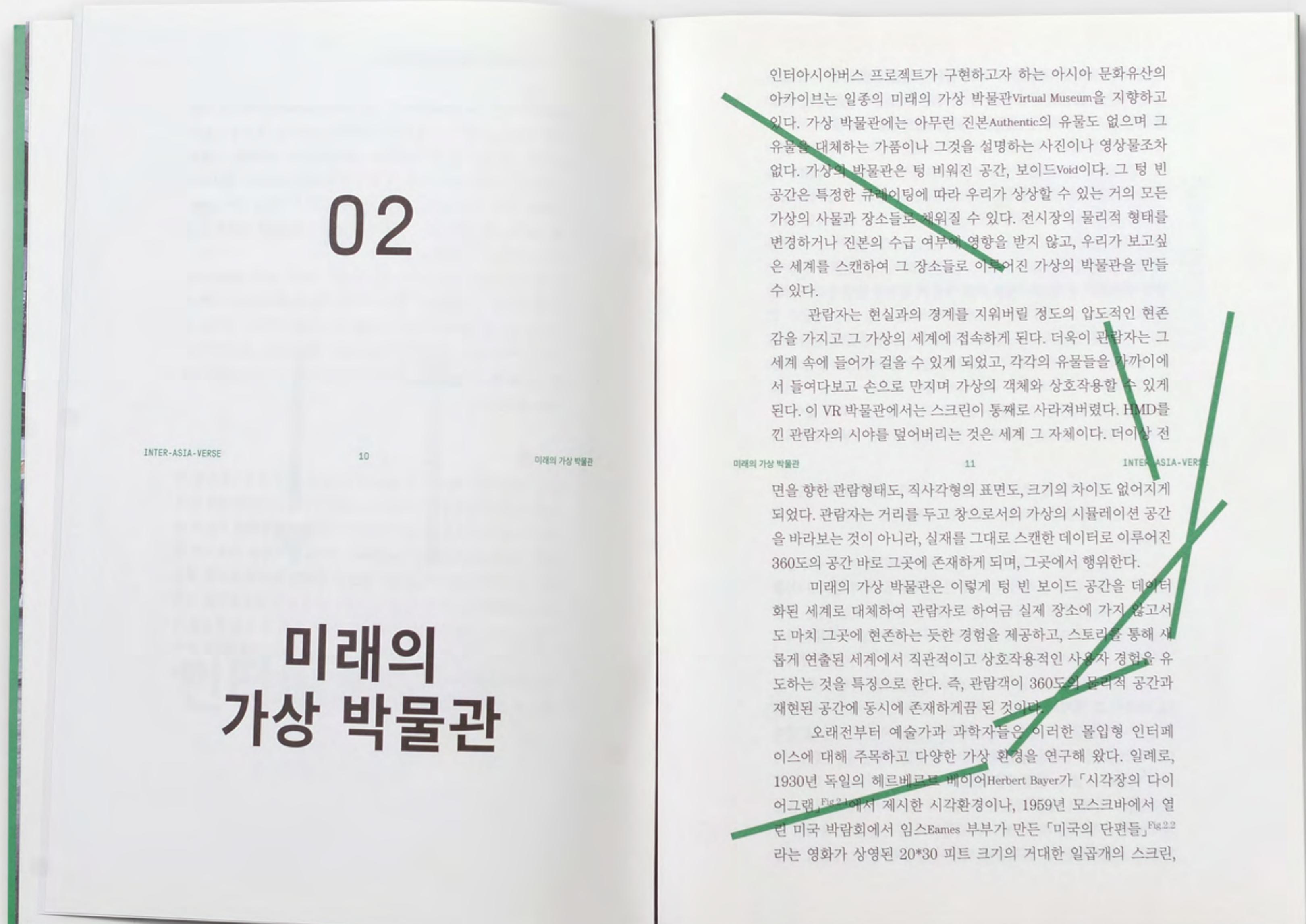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아시아의  
문화유산들을 주제로 한 가상 박물관 프로젝트  
인터-아시아-버스 도록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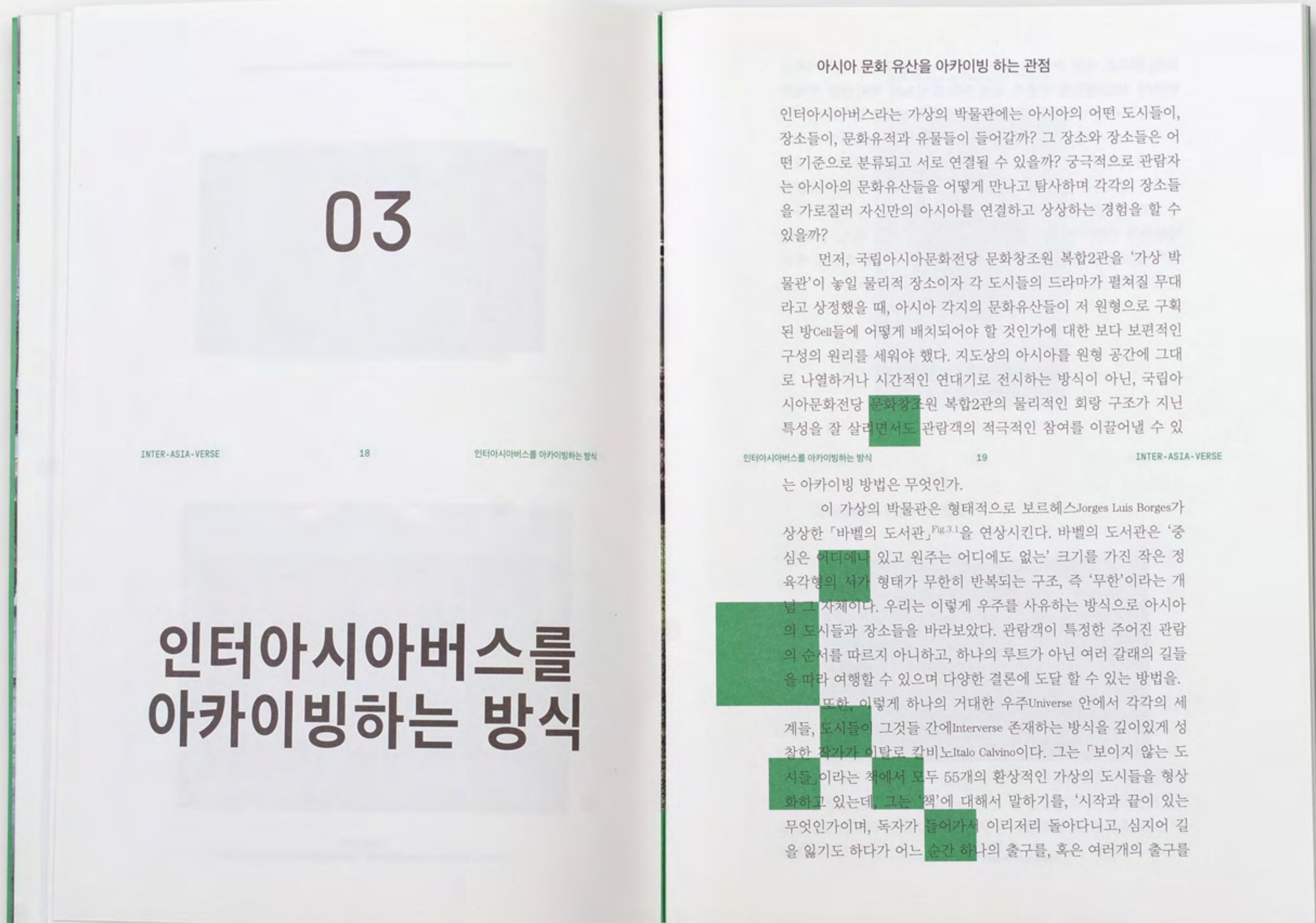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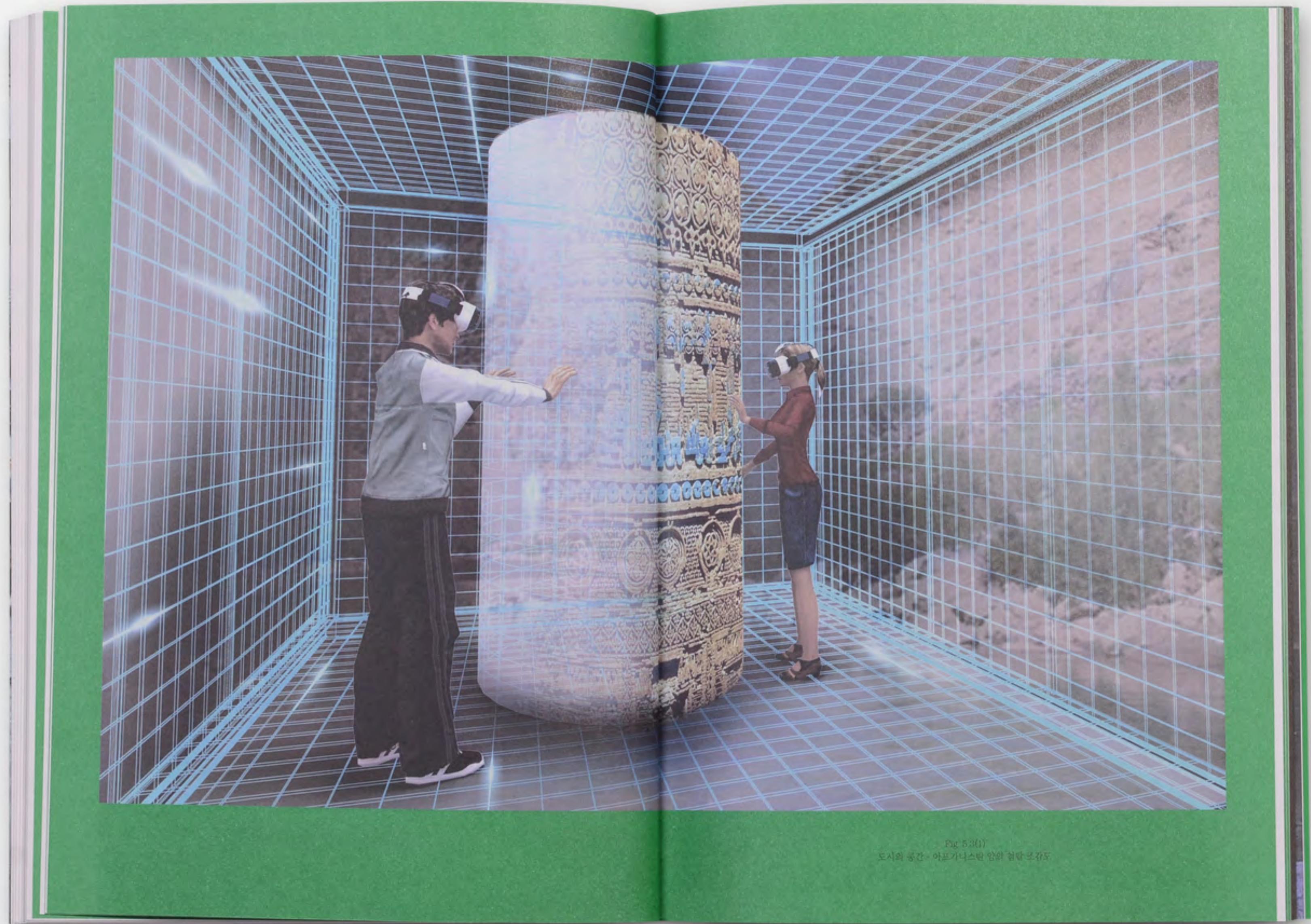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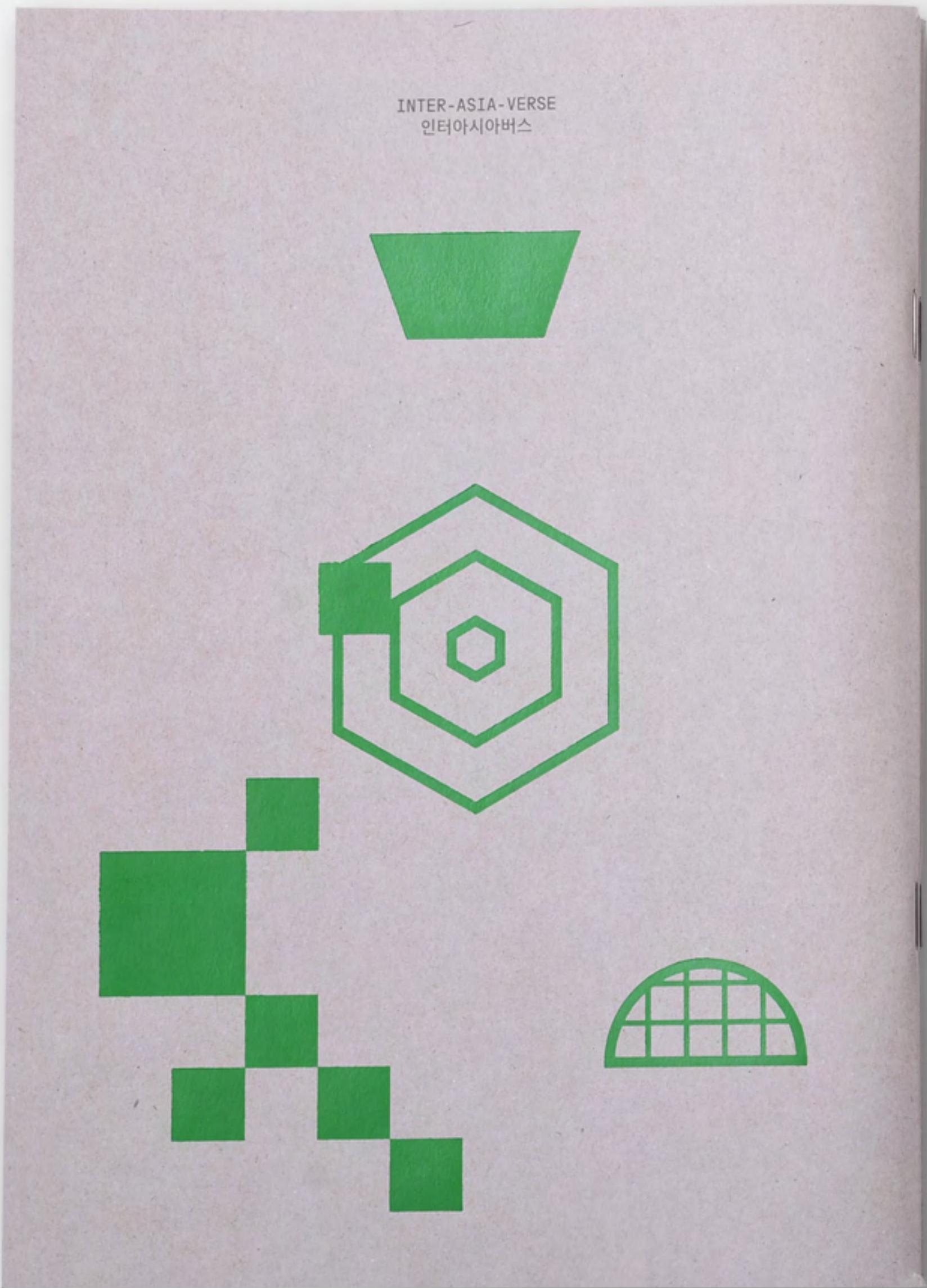


Fig. 5.3(1)  
도시의 공간 - 아프가니스탄 암의 철판-포감도





# The Other Room

## 2017

2017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서 열린  
3명의 일러스트레이터 [이인수, 권민호, 유창창]  
작가]의 특별 초대 전시 The Other Room  
그래픽 디자인 및 포스터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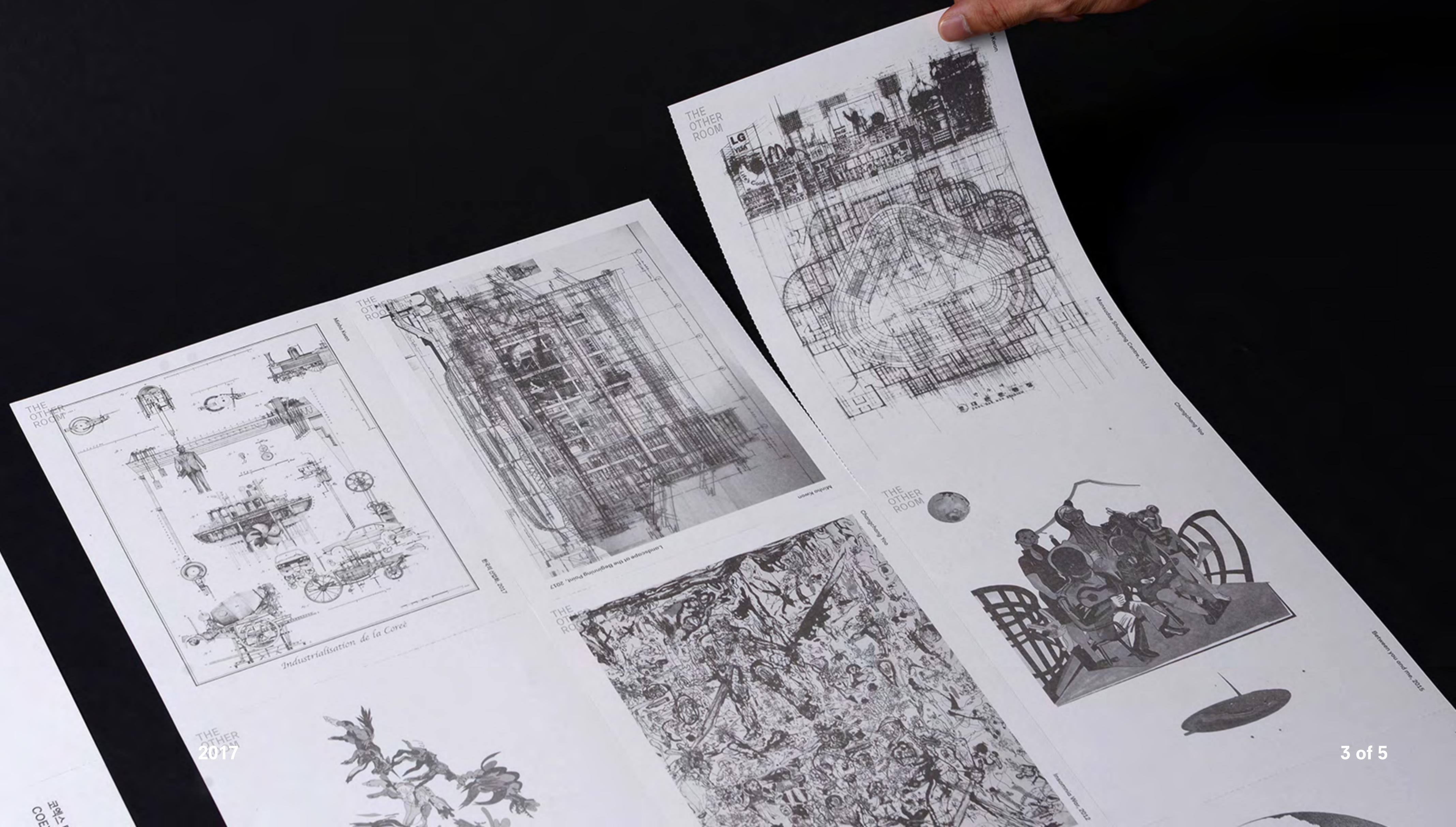






The Other Room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W – 특별전  
Seoul Illustration Fair W – Special Exhibition



3 of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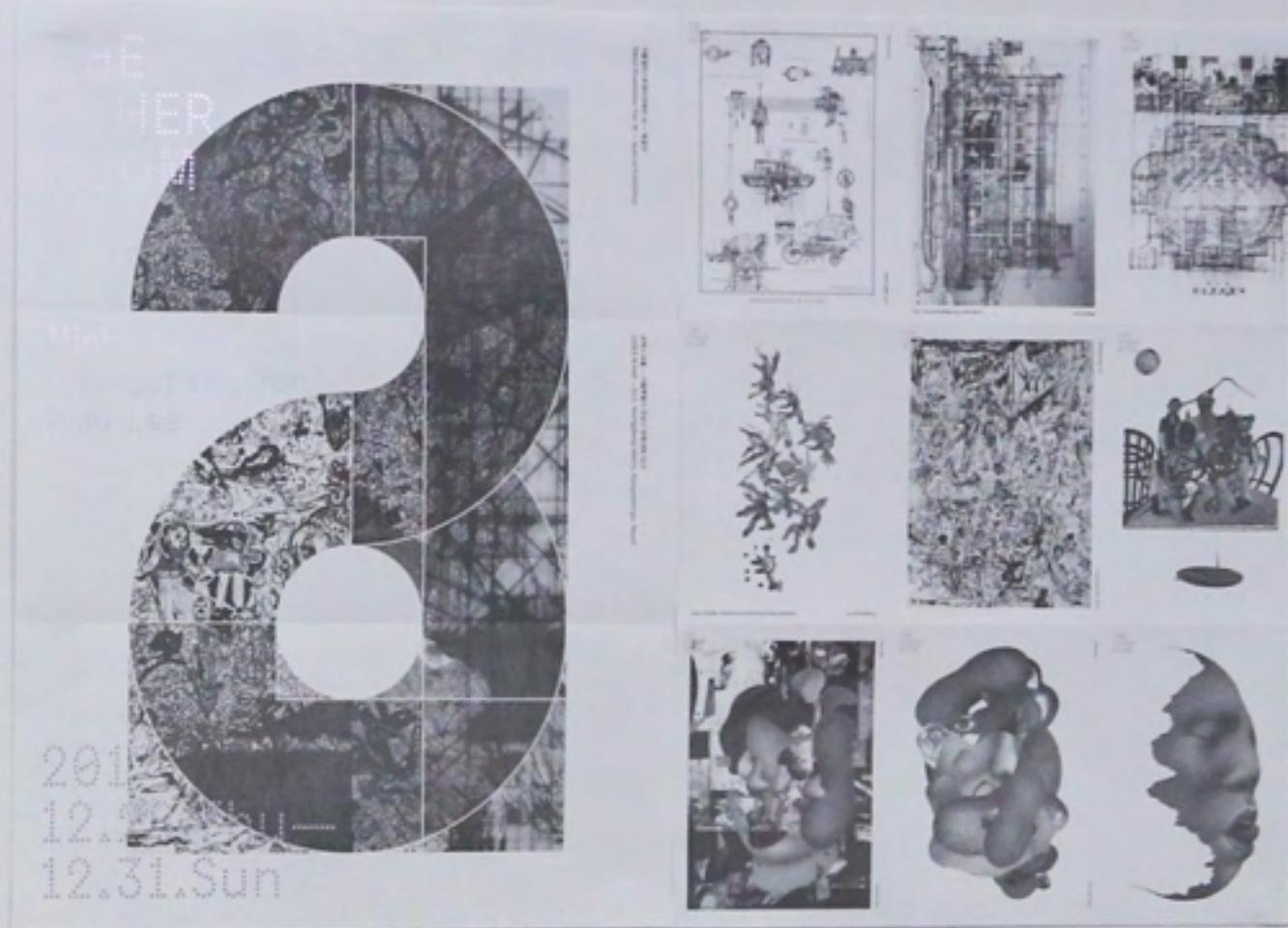




The Other Room

2017

# THE OTHER ROOM



The Other Room 전시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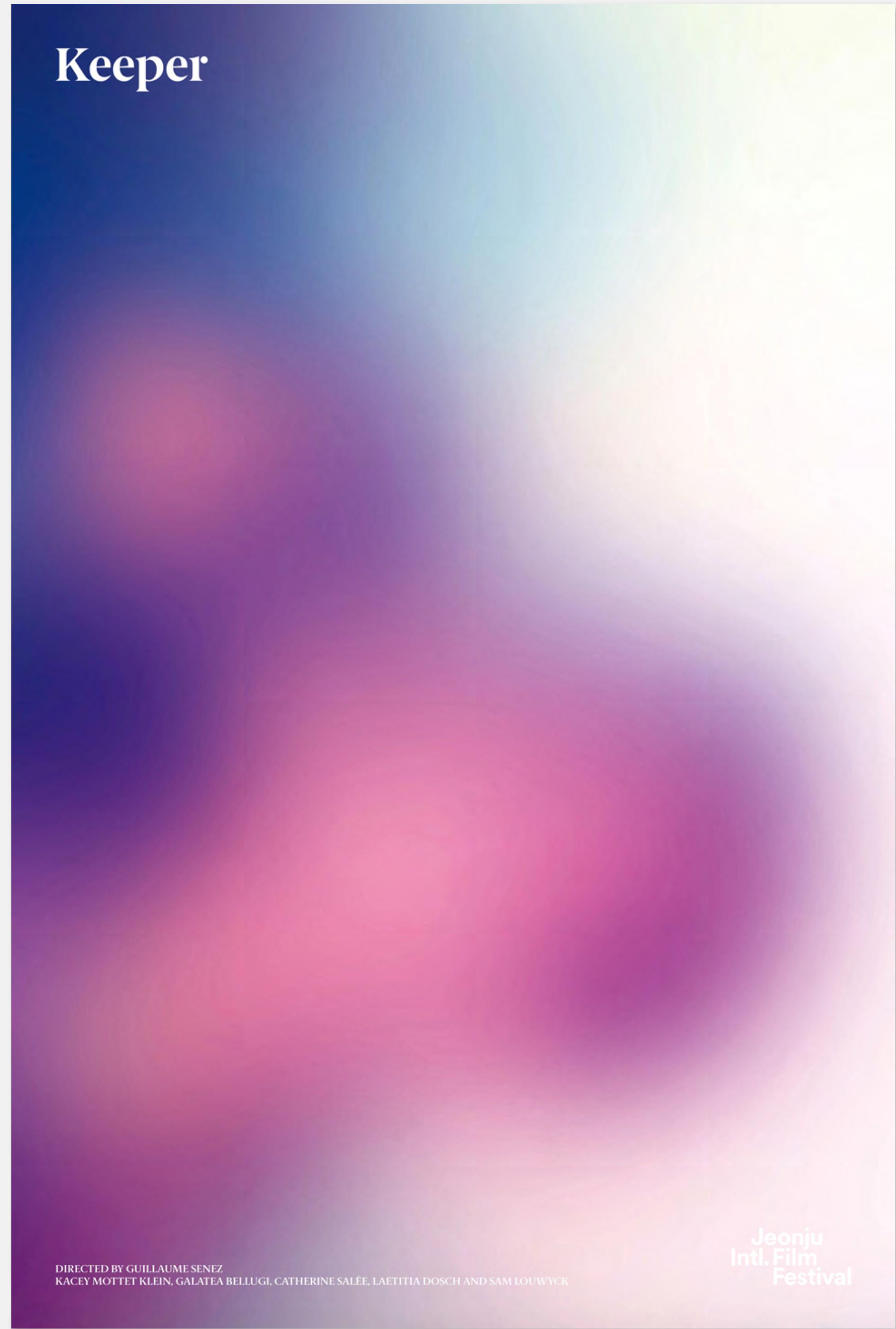
5 of 5

**전주국제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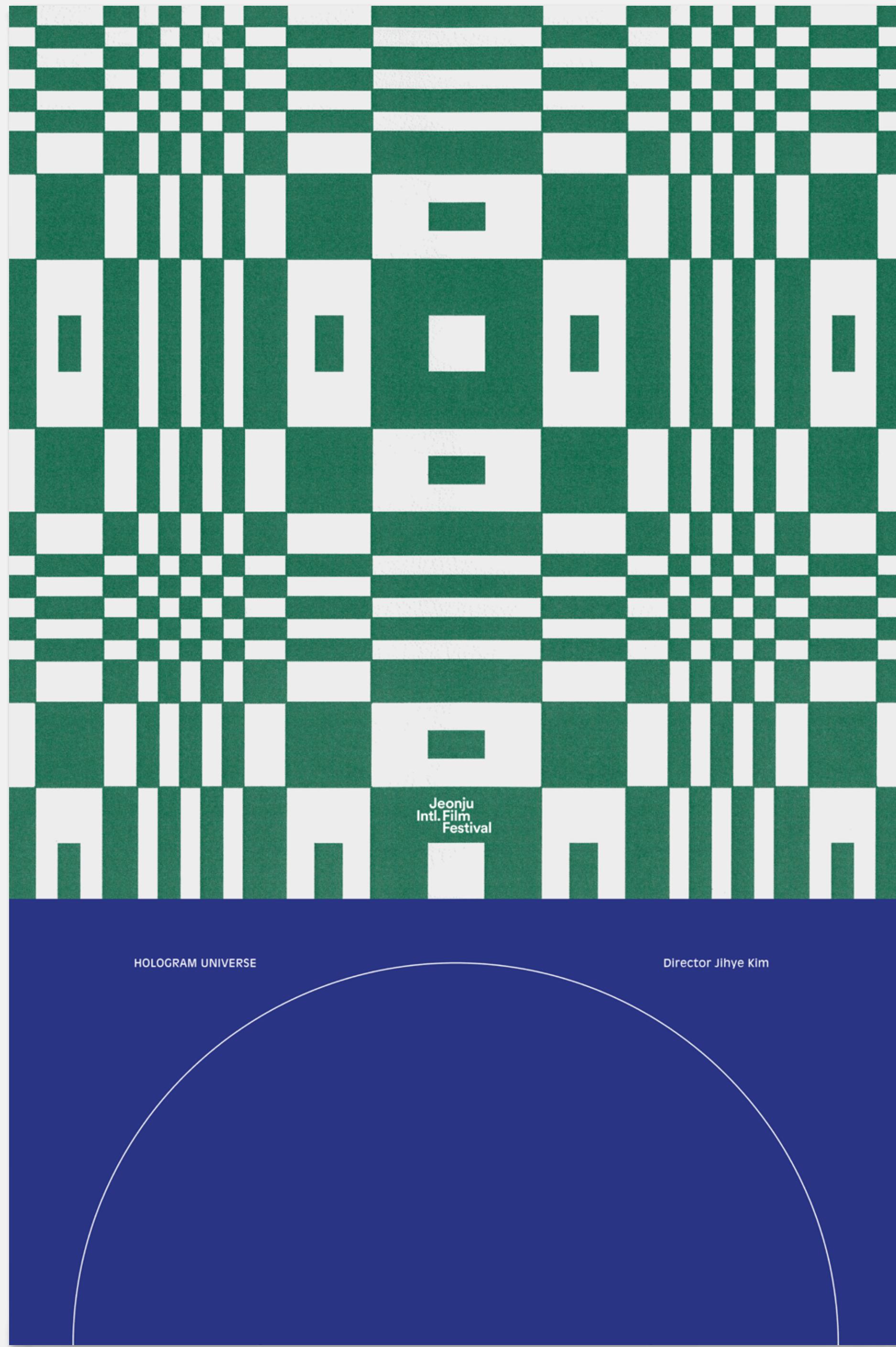
**100 Films, 100 Posters**

키퍼 Keeper, 2015

15살의 나이로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맥심과  
멜라니의 감정 관계를 다룬 영화로 그들의  
불투명하고 알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한 포스터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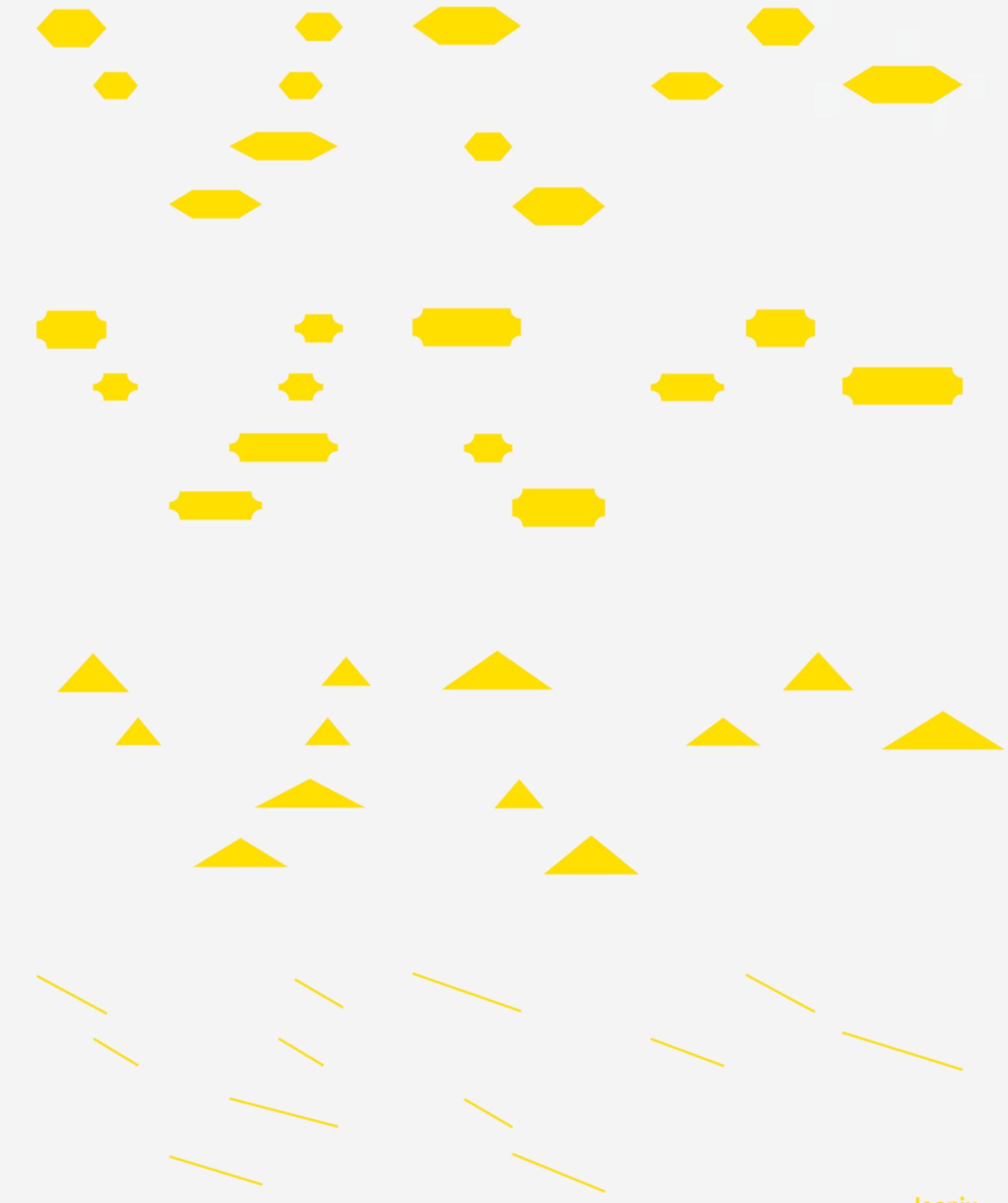
홀로그램 유니버스 Hologram Universe, 2016



# 봄이가도 After Spring, 2018

세월호 이후의 이야기를 세편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각 편이 시작 할 때마다 작품을 관통하는  
시 구절들이 나온다. 직접적인 단어들을 감추는  
방식으로 그 날을 암시하는 무거움을  
더러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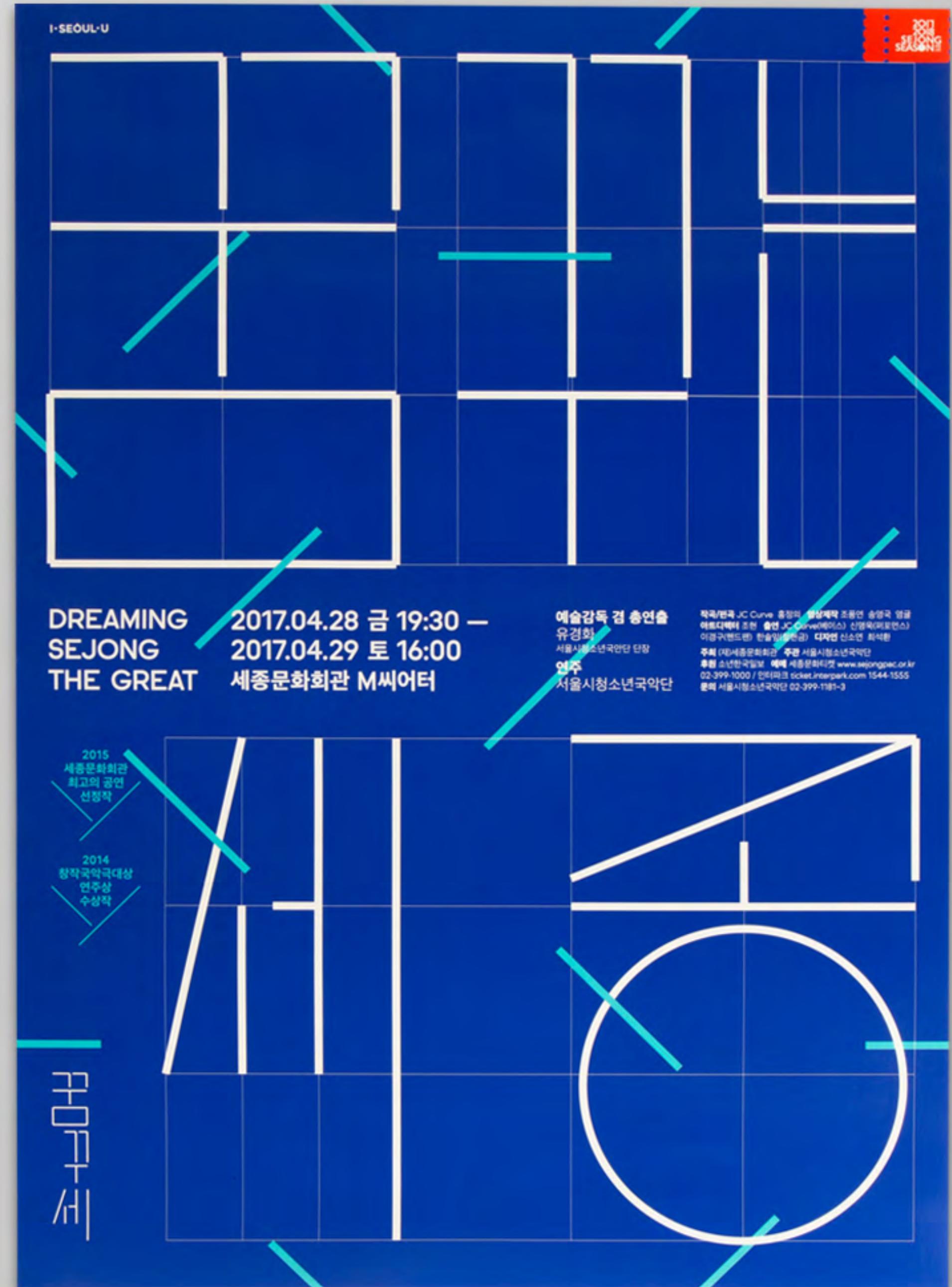
아주 **[ ]**에서 나는 너에게 **[ ]** 아주 **[ ]**을 다하여 너는 지금 **[ ]** 있다.<sup>1</sup>  
*From afar I hear you over vast reaches of time you come hereby*  
물론 나는 **[ ]** 있다. 오직 **[ ]**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 ]**보다 오래 **[ ]**.<sup>2</sup>  
*Of course I know; It's simply luck that I've survived so many friends*  
얼마나 많은 매미들이 **[ ]** 채 여름을 **[ ]**할 것인가.<sup>3</sup>  
*How many cicadas will give up summer worn out crying?*  
봄이가도 그대를 **[ ]** 없고 별이져도 그대를 **[ ]** 없다  
*Though spring has passed I have not forgotten you Though stars have set I have not forgotten you*



# Dreaming Sejong The Great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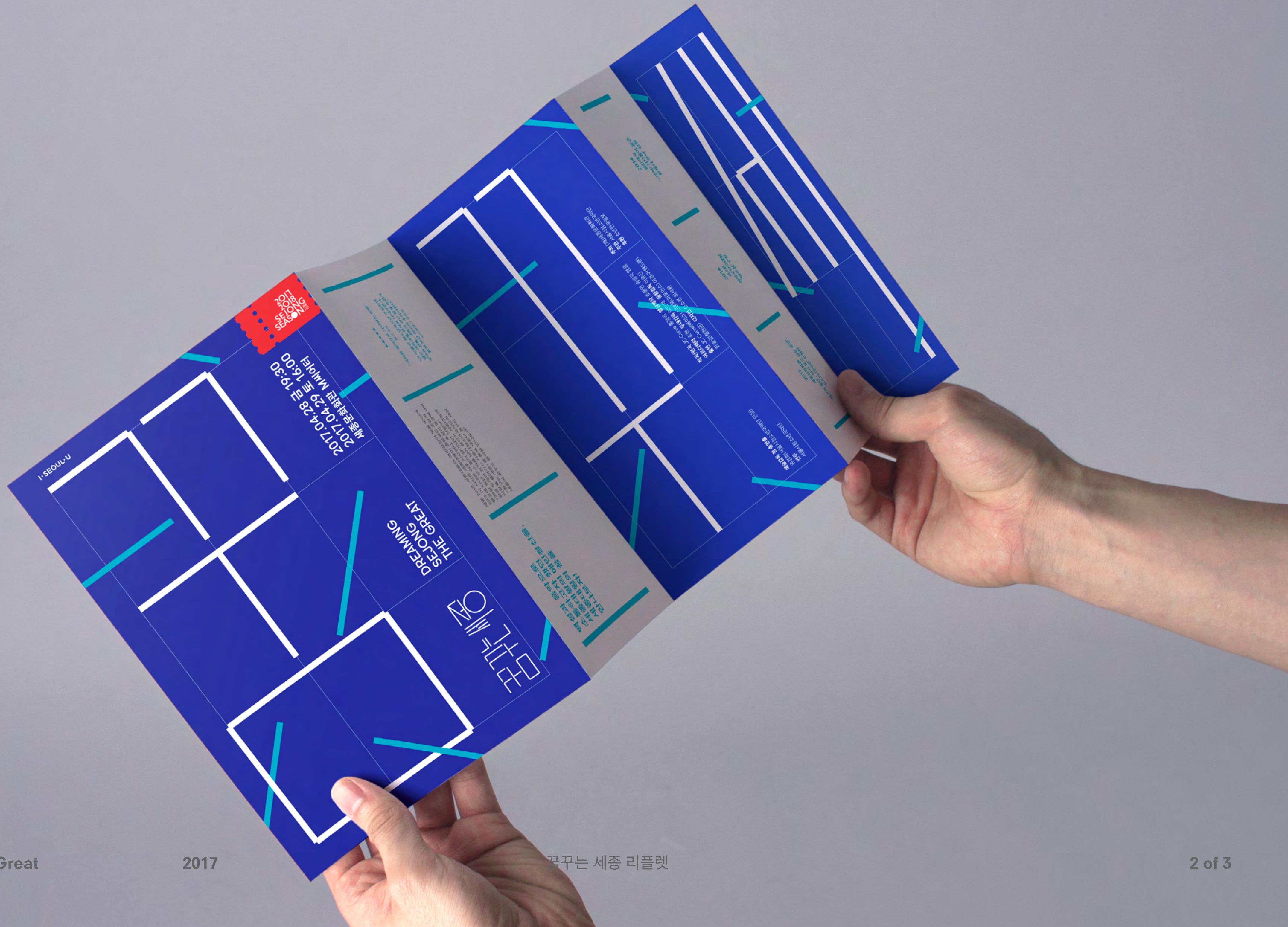
서울시청소년국악단 국악콘서트  
[꿈꾸는 세종] 포스터 및 홍보물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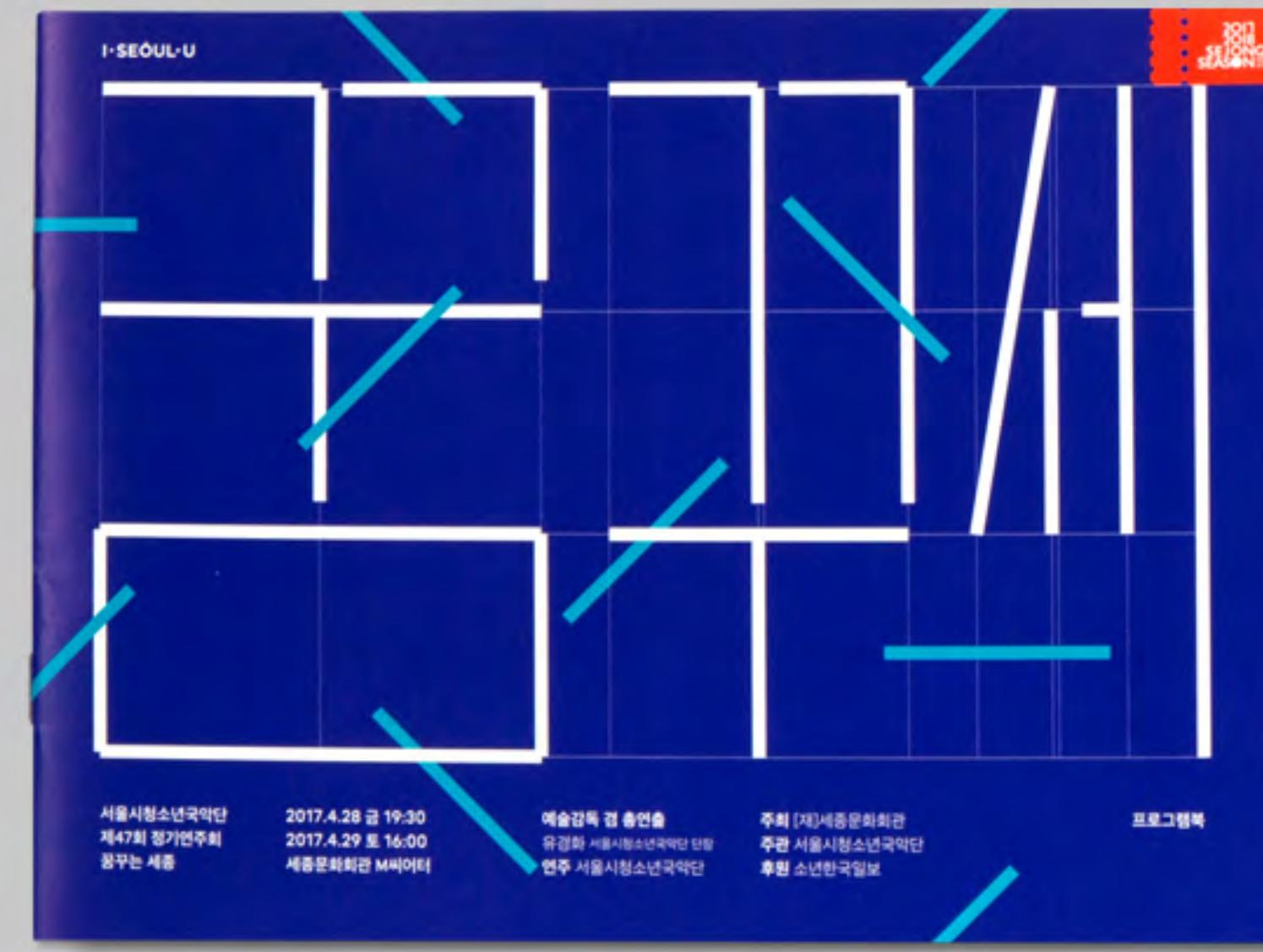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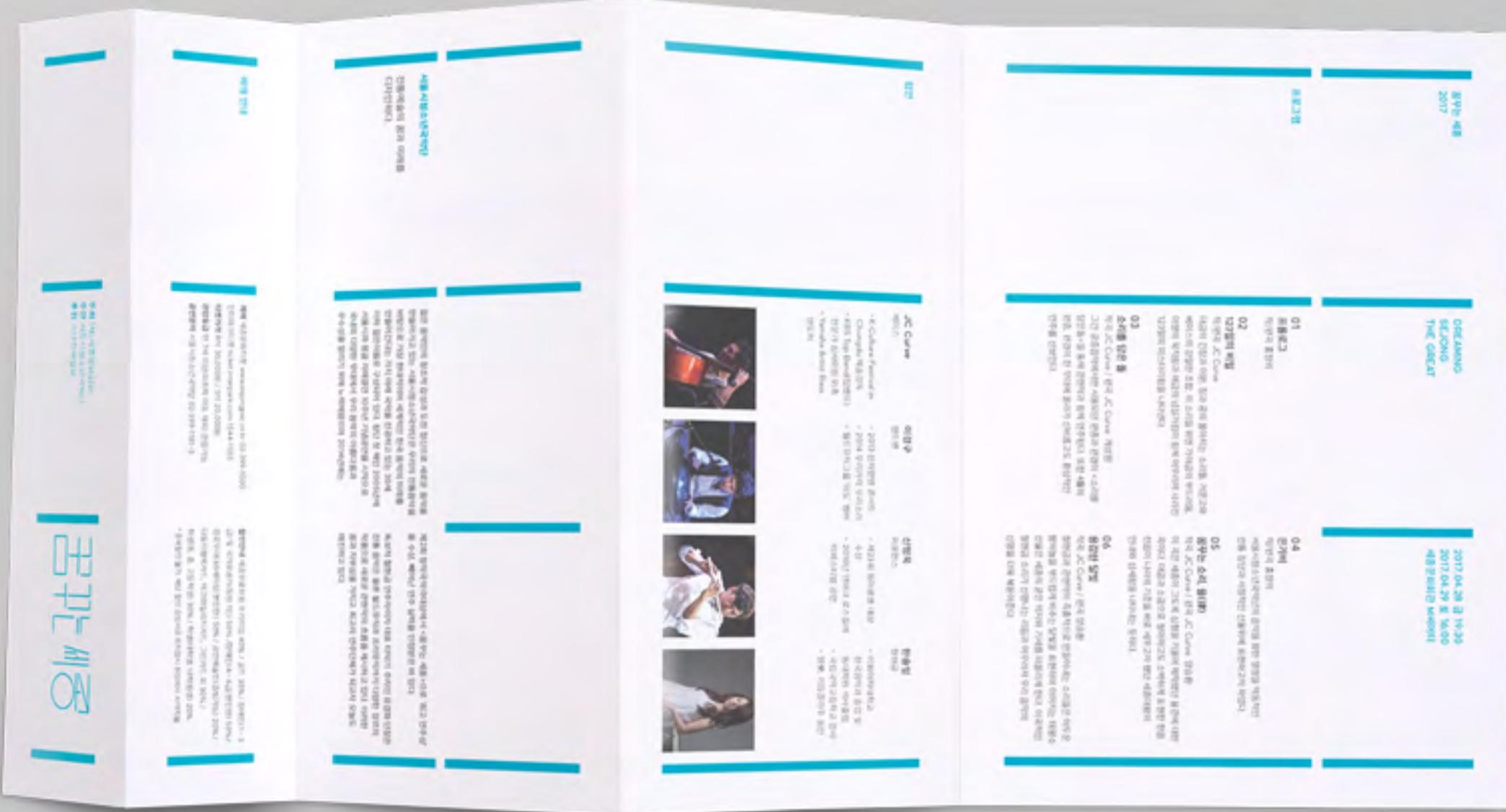


Dreaming Sejong The Great

2017

꿈꾸는 세종 메인 포스터





# Dreaming Sejong The Great

2017

## 꿈꾸는 세종 리플렛, 프로그램 복

3 of 3

# **99% Design Expo**

## **2017**

계원예술대학교 주최 주관의 예술박람회  
99% Design Expo 아이덴티티 및  
홍보물 디자인



99% Design Ex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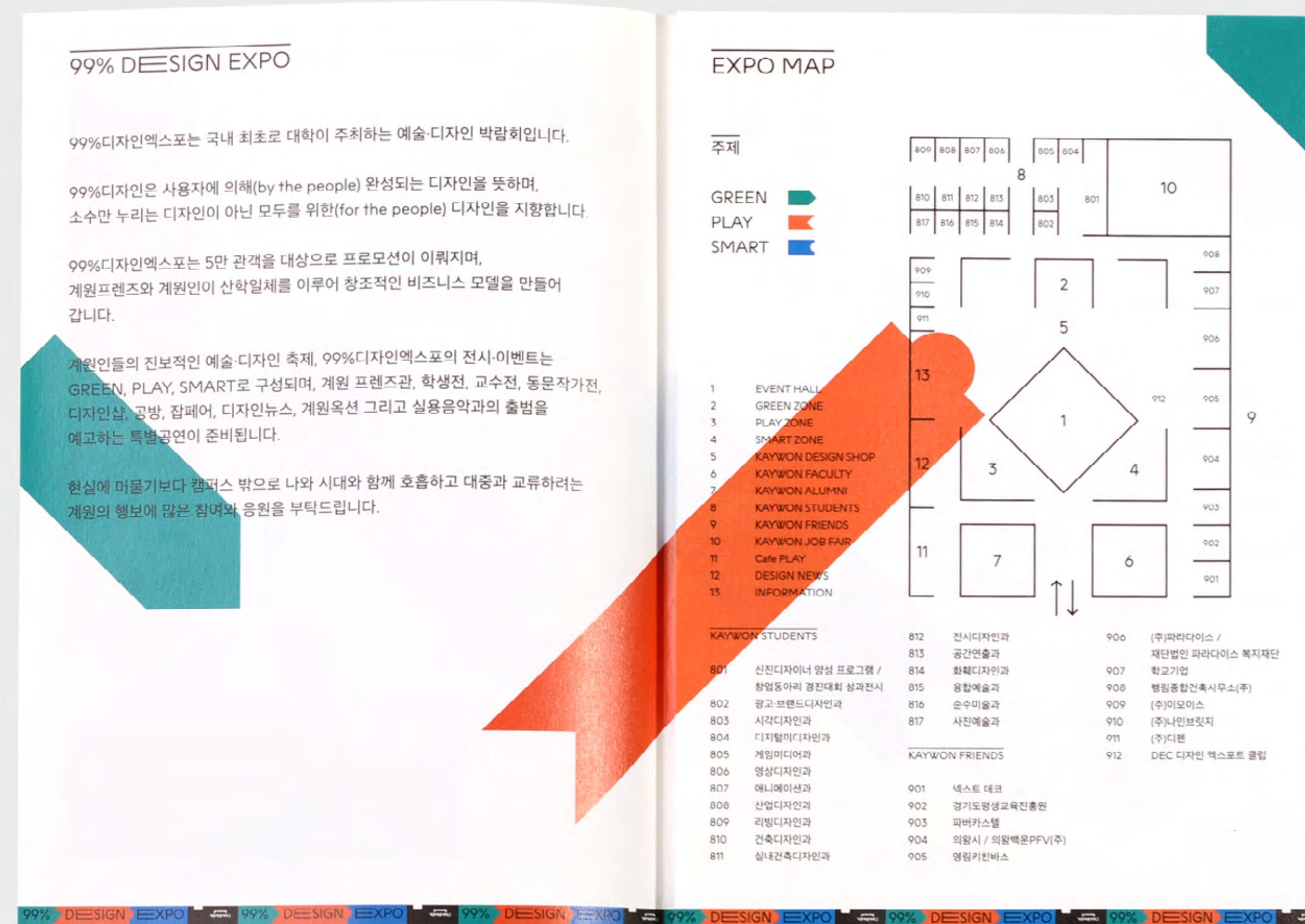
2017



99% Design Expo 메인 포스터

1 of 6





Hall B2

# 99% DESIGN EXPO

2017.12.14.THU  
—12.17.SUN  
COEX 1층 BHall

계원예술대학교  
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99% Design Expo

2017

99% Design Expo 배너

5 of 6



99% Design Expo

2017

6 of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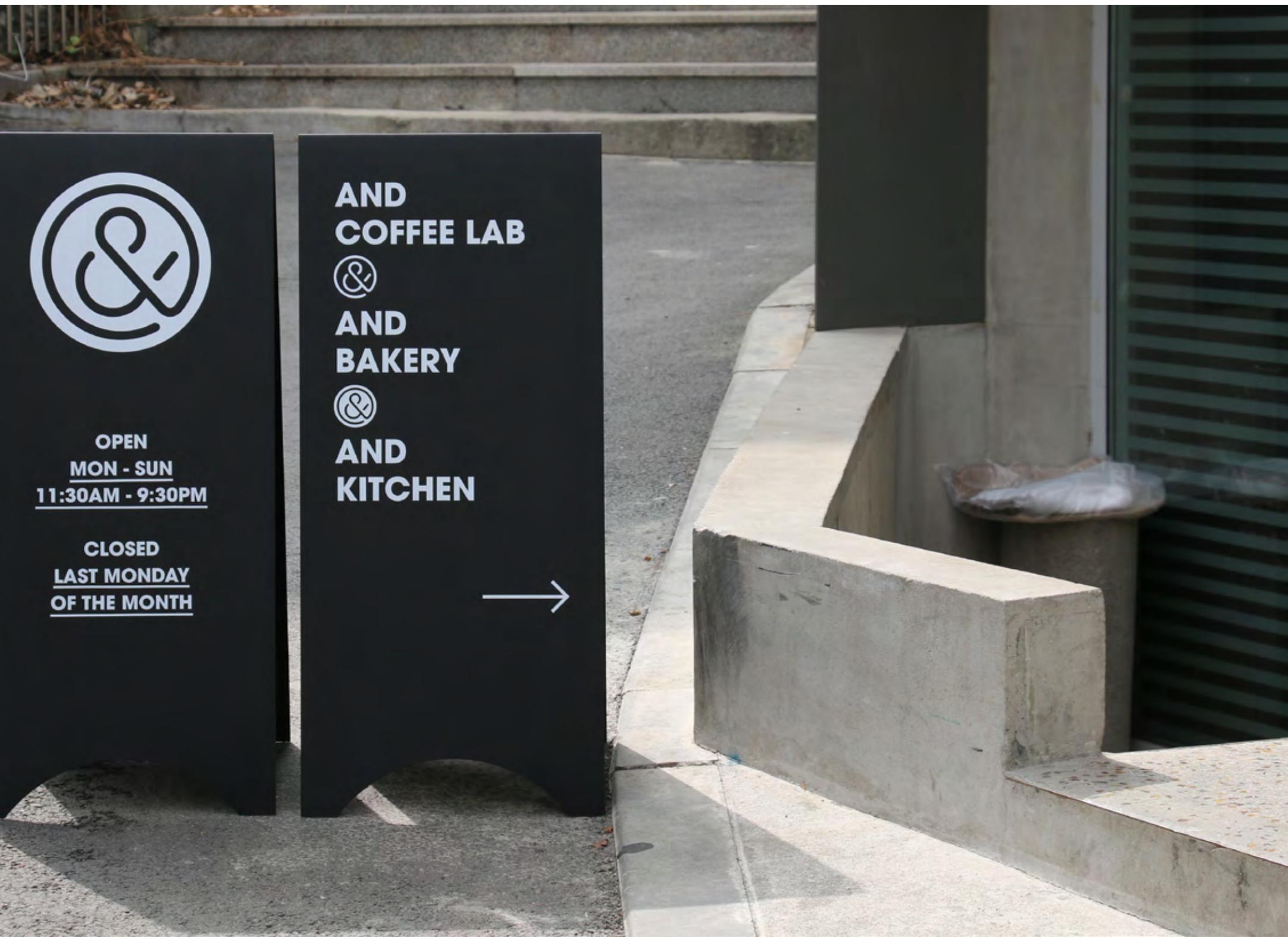
# AND Coffee Lab

## 2018

앤드커피랩 카페의 전반적인 패키지 디자인 담당.  
시즌마다 바뀌는 원두 패키지와 설명이 담긴 책자,  
마들렌, 시럽 패키지 디자인, 사이니지, 메뉴  
포스터 등을 디자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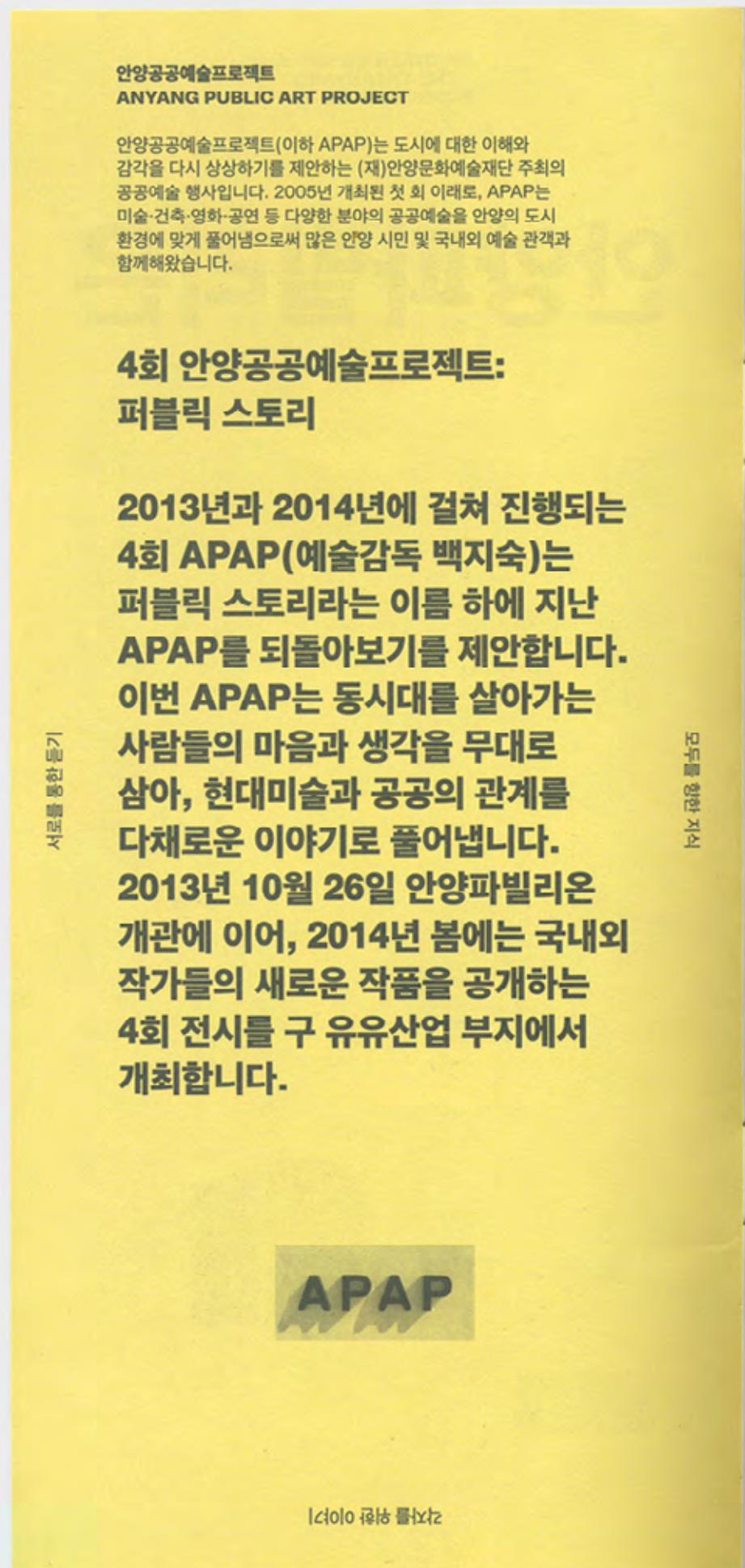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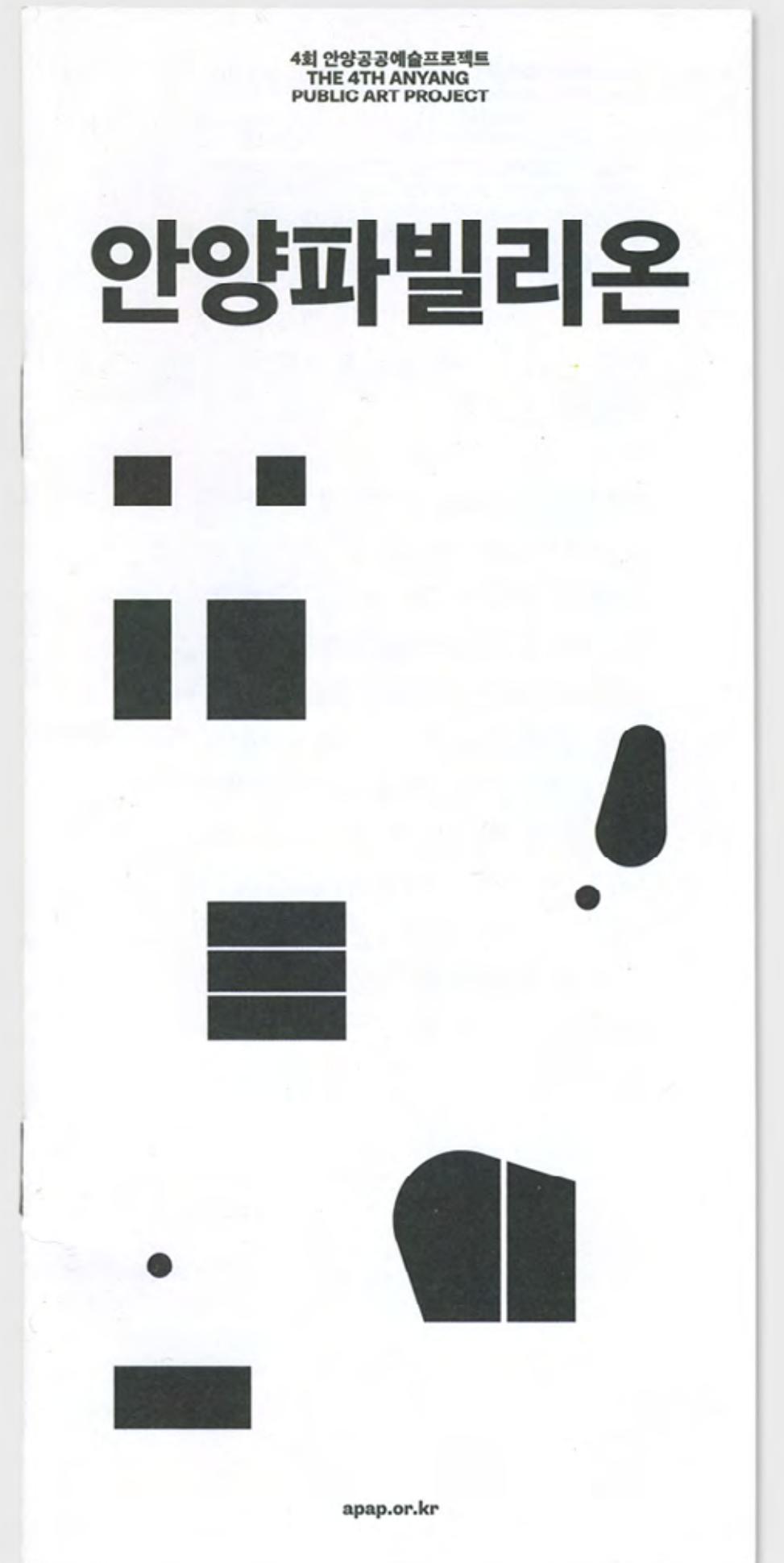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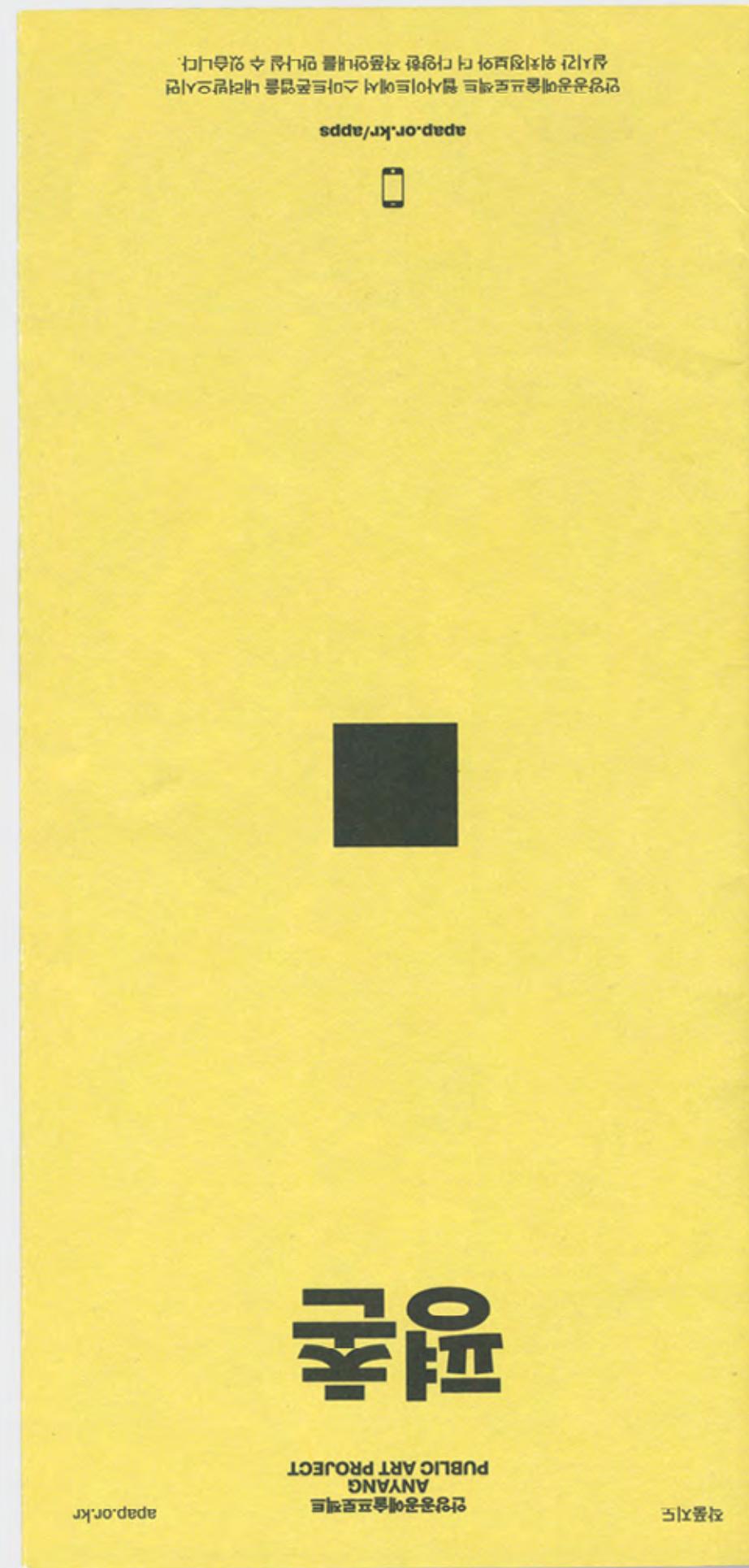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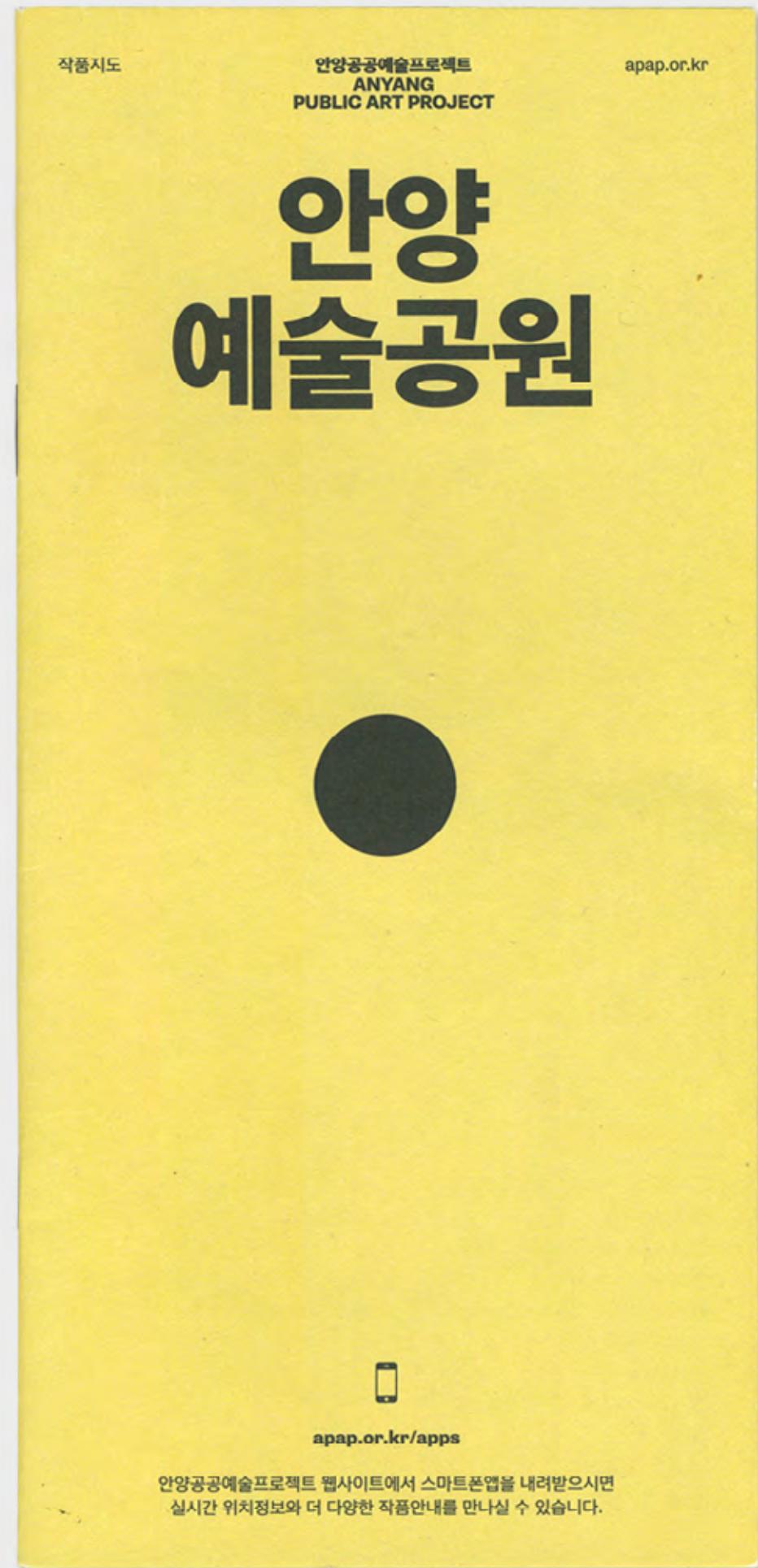
#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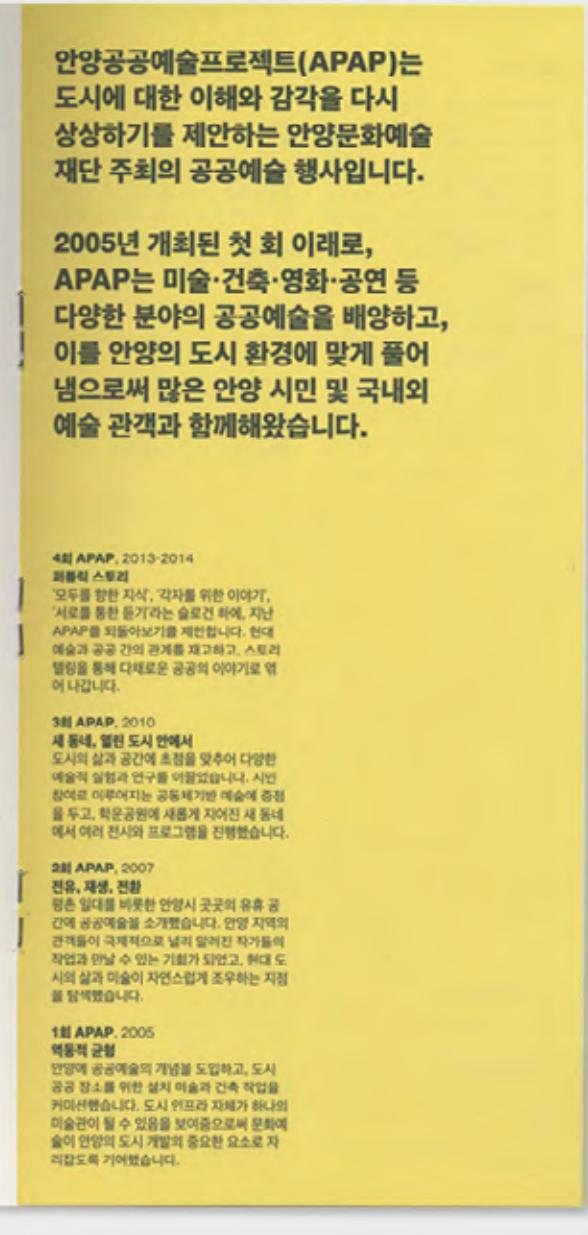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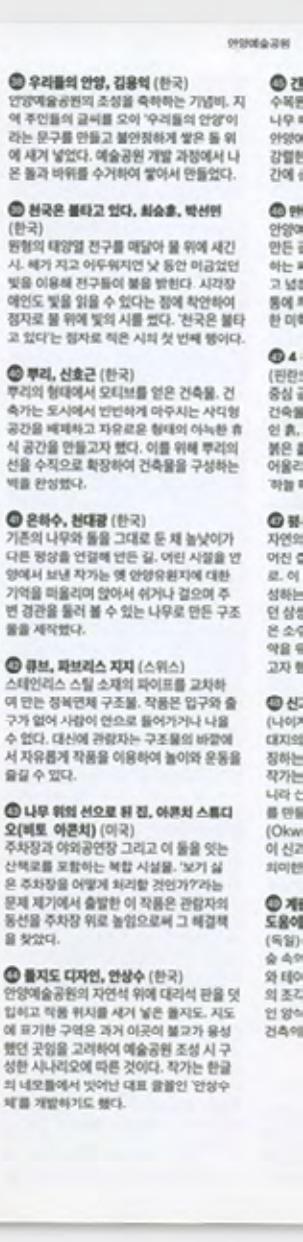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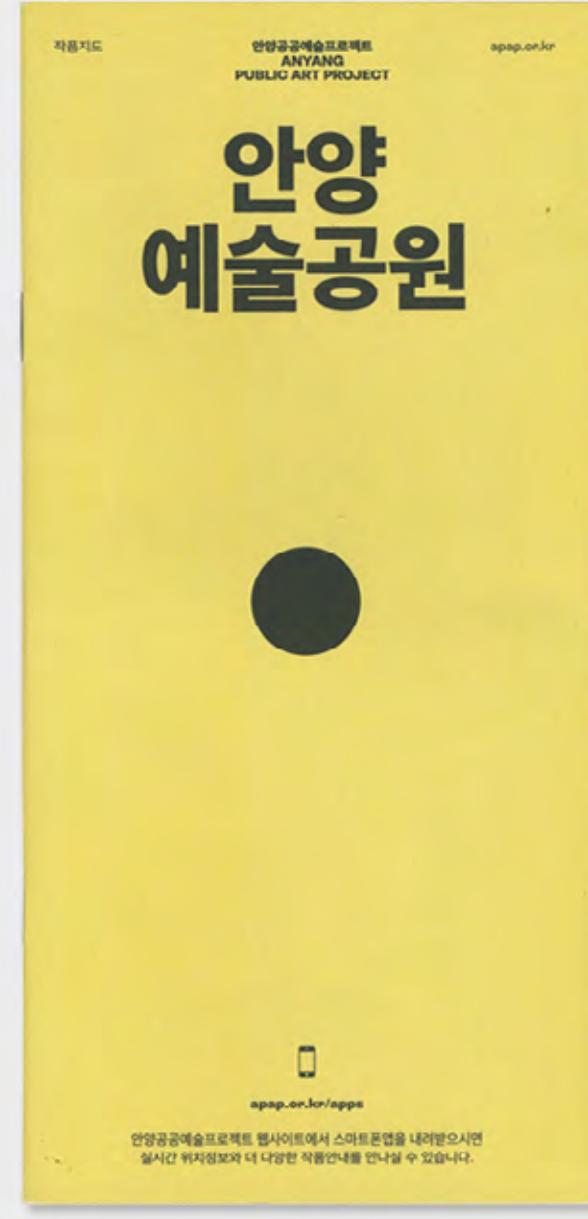
## **2014**

안양시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공공예술 축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의 제4회 초기

브랜딩 프로젝트 및 책자 디자인 참여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 안양파빌리온

www.apap.or.kr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NYANG PUBLIC ART PROJECT**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는 도시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다시 생각하기를 제안하는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주최의 공공예술 축제입니다. 2005년 개최된 첫 번째 APAP는 대·소·미술·문화·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예술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맞장구처럼 새로운 히브입니다.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피블릭 스토리**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진행되는 4회 APAP(예술길드 백지숙)는 피블릭 스토리라는 이름 하에 지난 APAP는 되돌아보기를 제안합니다. 이번 APAP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대로 삶, 현대미술과 공공의 관계를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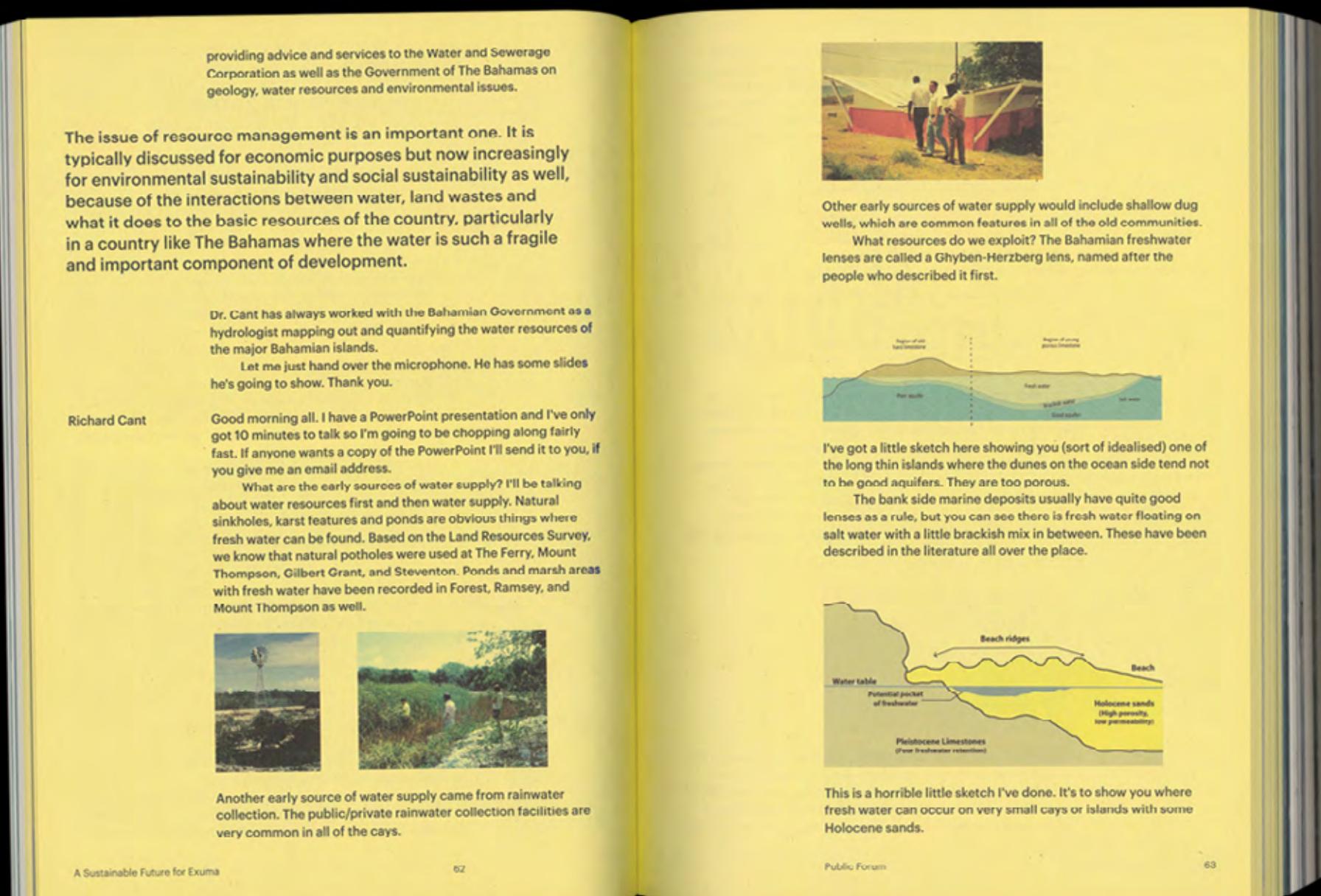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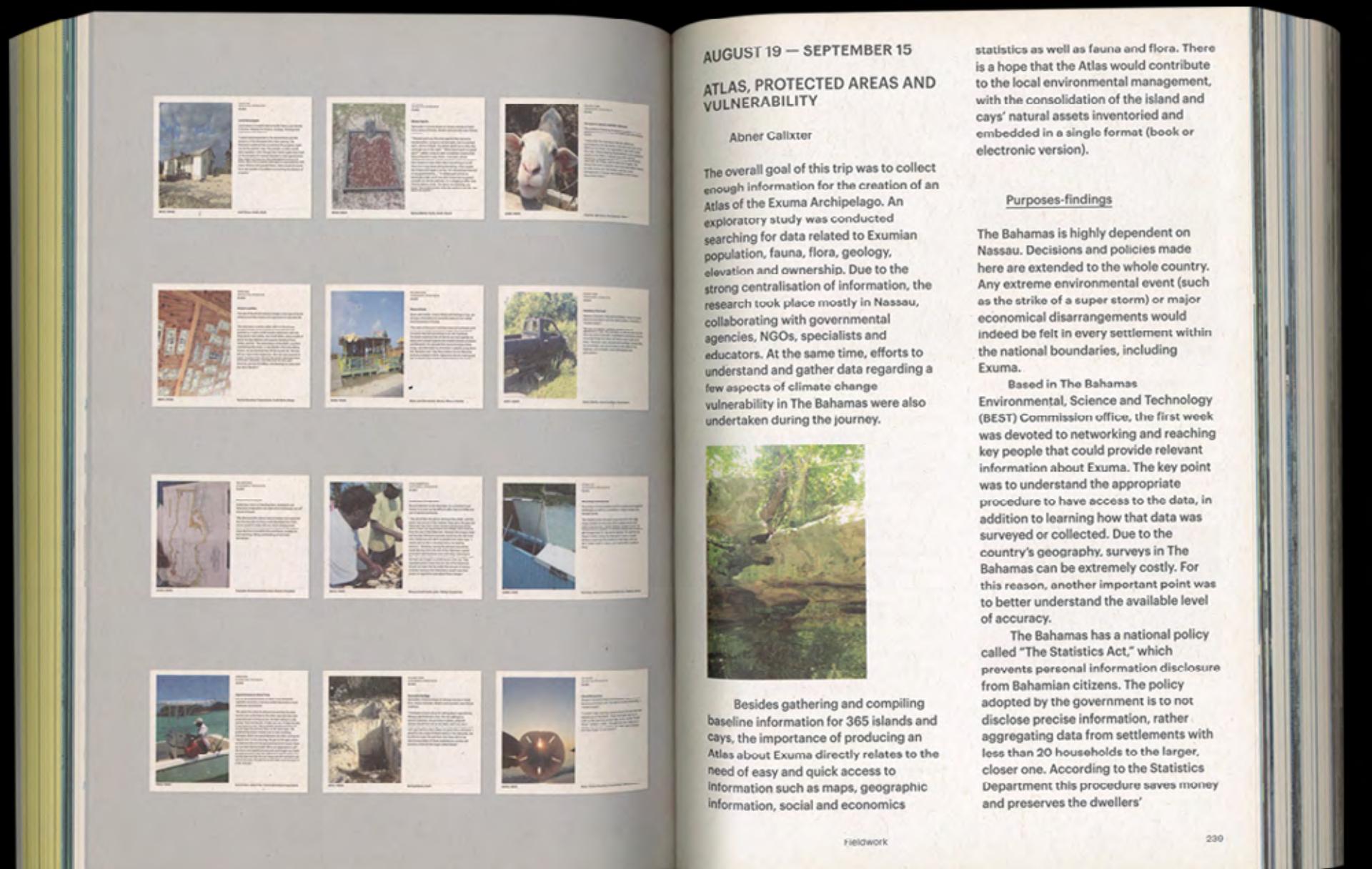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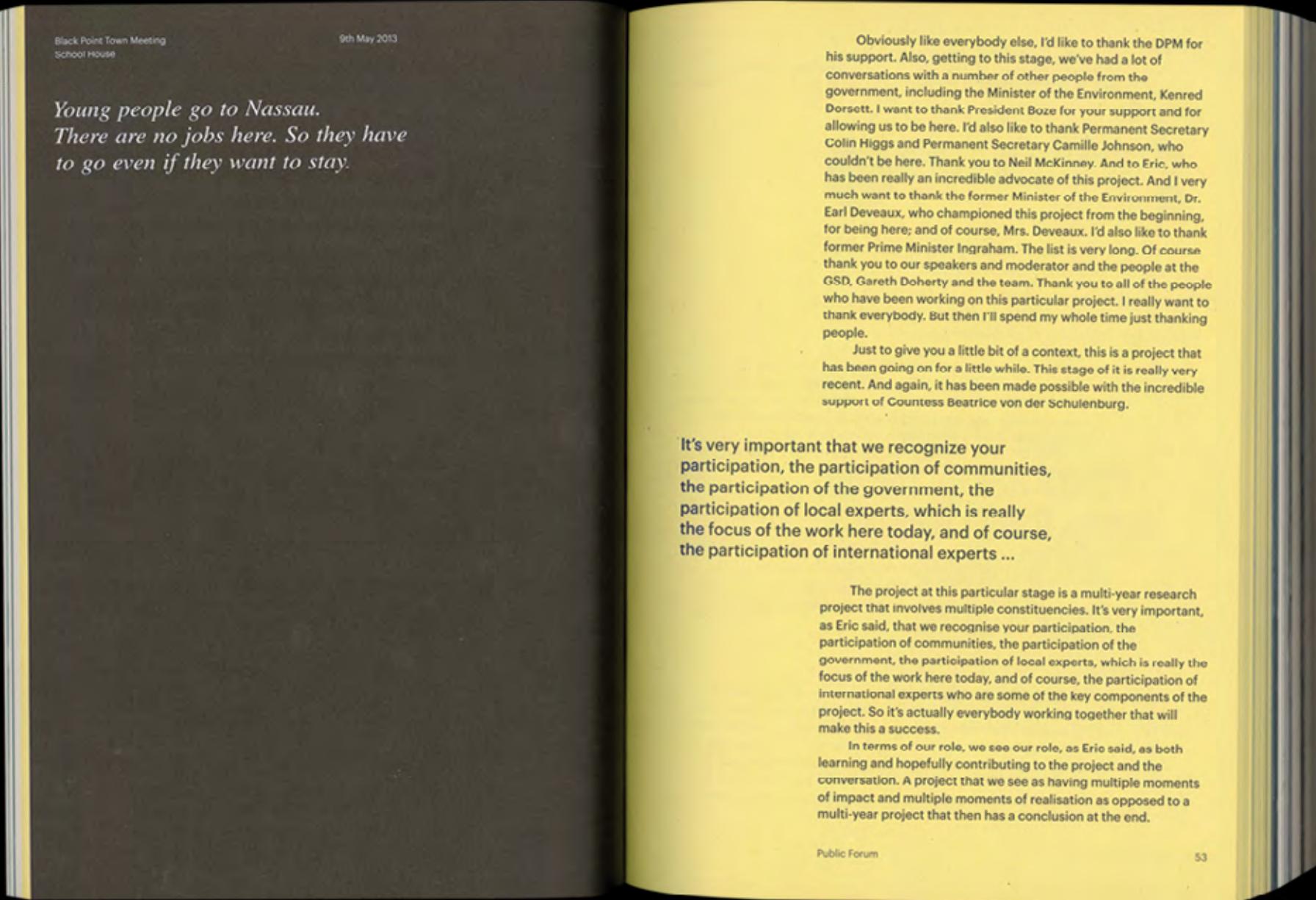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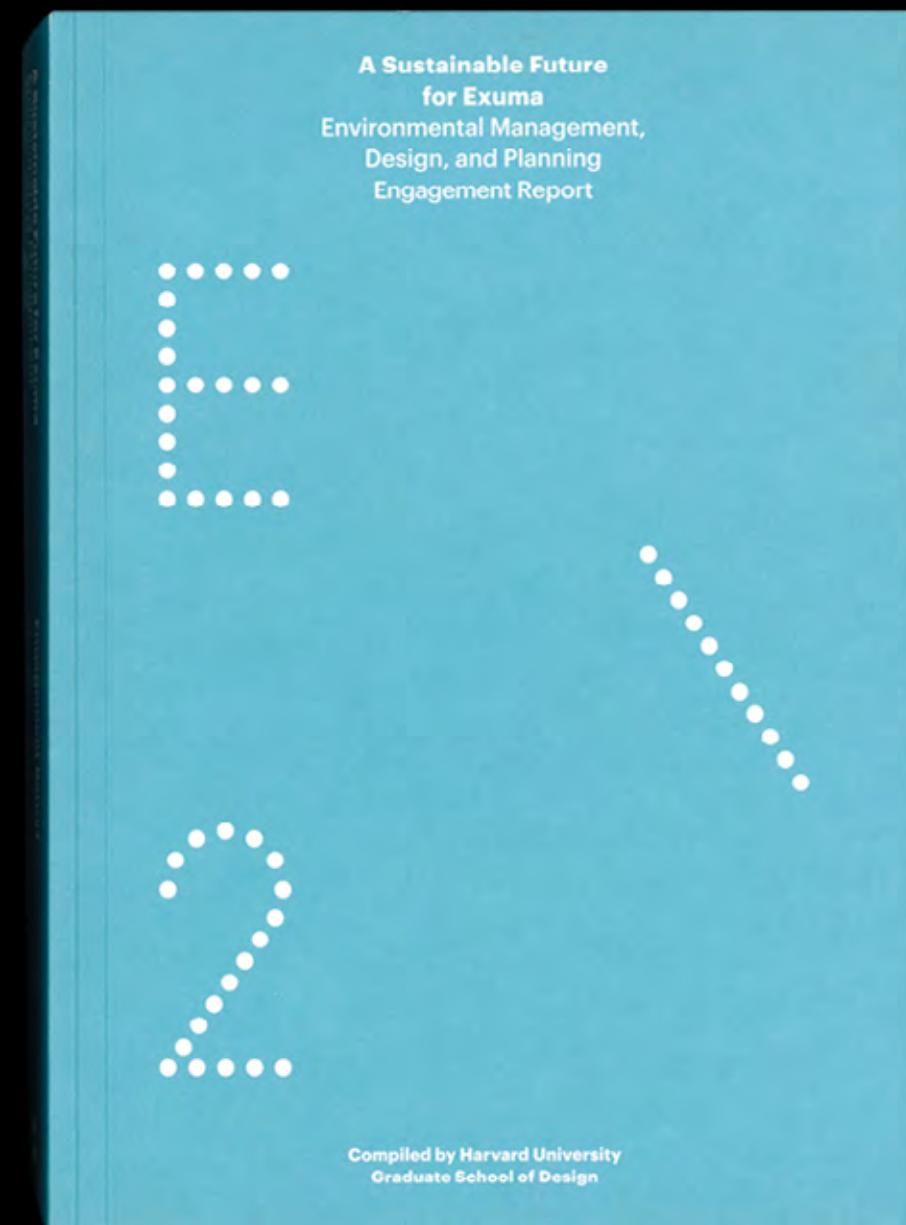
2013년 10월 26일 안양파빌리온 개관에 이어, 2014년 봄에는 국내외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공개하는 4회 전시를 구 유유산업 부지에서 개최합니다.

**4회 APAP(예술길드 백지숙)**  
2013년 10월 26일 ~ 2014년 4월 6일  
2014년 4월 12일 ~ 2014년 5월 11일  
2014년 5월 17일 ~ 2014년 6월 15일  
2014년 6월 21일 ~ 2014년 7월 13일  
2014년 7월 19일 ~ 2014년 8월 10일  
2014년 8월 23일 ~ 2014년 9월 15일  
2014년 9월 29일 ~ 2014년 10월 13일  
2014년 10월 19일 ~ 2014년 11월 2일  
2014년 11월 9일 ~ 2014년 12월 7일  
2014년 12월 13일 ~ 2015년 1월 10일  
2015년 1월 17일 ~ 2015년 2월 15일  
2015년 2월 22일 ~ 2015년 3월 15일  
2015년 3월 29일 ~ 2015년 4월 12일  
2015년 4월 19일 ~ 2015년 5월 10일  
2015년 5월 17일 ~ 2015년 6월 13일  
2015년 6월 20일 ~ 2015년 7월 11일  
2015년 7월 18일 ~ 2015년 8월 15일  
2015년 8월 22일 ~ 2015년 9월 12일  
2015년 9월 29일 ~ 2015년 10월 13일  
2015년 10월 19일 ~ 2015년 11월 2일  
2015년 11월 9일 ~ 2015년 12월 7일  
2015년 12월 13일 ~ 2016년 1월 10일  
2016년 1월 17일 ~ 2016년 2월 15일  
2016년 2월 22일 ~ 2016년 3월 15일  
2016년 3월 29일 ~ 2016년 4월 12일  
2016년 4월 19일 ~ 2016년 5월 10일  
2016년 5월 17일 ~ 2016년 6월 13일  
2016년 6월 20일 ~ 2016년 7월 11일  
2016년 7월 18일 ~ 2016년 8월 15일  
2016년 8월 22일 ~ 2016년 9월 12일  
2016년 9월 29일 ~ 2016년 10월 13일  
2016년 10월 19일 ~ 2016년 11월 2일  
2016년 11월 9일 ~ 2016년 12월 7일  
2016년 12월 13일 ~ 2017년 1월 10일  
2017년 1월 17일 ~ 2017년 2월 15일  
2017년 2월 22일 ~ 2017년 3월 15일  
2017년 3월 29일 ~ 2017년 4월 12일  
2017년 4월 19일 ~ 2017년 5월 10일  
2017년 5월 17일 ~ 2017년 6월 13일  
2017년 6월 20일 ~ 2017년 7월 11일  
2017년 7월 18일 ~ 2017년 8월 15일  
2017년 8월 22일 ~ 2017년 9월 12일  
2017년 9월 29일 ~ 2017년 10월 13일  
2017년 10월 19일 ~ 2017년 11월 2일  
2017년 11월 9일 ~ 2017년 12월 7일  
2017년 12월 13일 ~ 2018년 1월 10일  
2018년 1월 17일 ~ 2018년 2월 15일  
2018년 2월 22일 ~ 2018년 3월 15일  
2018년 3월 29일 ~ 2018년 4월 12일  
2018년 4월 19일 ~ 2018년 5월 10일  
2018년 5월 17일 ~ 2018년 6월 13일  
2018년 6월 20일 ~ 2018년 7월 11일  
2018년 7월 18일 ~ 2018년 8월 15일  
2018년 8월 22일 ~ 2018년 9월 12일  
2018년 9월 29일 ~ 2018년 10월 13일  
2018년 10월 19일 ~ 2018년 11월 2일  
2018년 11월 9일 ~ 2018년 12월 7일  
2018년 12월 13일 ~ 2019년 1월 10일  
2019년 1월 17일 ~ 2019년 2월 15일  
2019년 2월 22일 ~ 2019년 3월 15일  
2019년 3월 29일 ~ 2019년 4월 12일  
2019년 4월 19일 ~ 2019년 5월 10일  
2019년 5월 17일 ~ 2019년 6월 13일  
2019년 6월 20일 ~ 2019년 7월 11일  
2019년 7월 18일 ~ 2019년 8월 15일  
2019년 8월 22일 ~ 2019년 9월 12일  
2019년 9월 29일 ~ 2019년 10월 13일  
2019년 10월 19일 ~ 2019년 11월 2일  
2019년 11월 9일 ~ 2019년 12월 7일  
2019년 12월 13일 ~ 2020년 1월 10일  
2020년 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  
2020년 2월 22일 ~ 2020년 3월 15일  
2020년 3월 29일 ~ 2020년 4월 12일  
2020년 4월 19일 ~ 2020년 5월 10일  
2020년 5월 17일 ~ 2020년 6월 13일  
2020년 6월 20일 ~ 2020년 7월 11일  
2020년 7월 18일 ~ 2020년 8월 15일  
2020년 8월 22일 ~ 2020년 9월 12일  
2020년 9월 29일 ~ 2020년 10월 13일  
2020년 10월 19일 ~ 2020년 11월 2일  
2020년 11월 9일 ~ 2020년 12월 7일  
2020년 12월 13일 ~ 2021년 1월 10일  
2021년 1월 17일 ~ 2021년 2월 15일  
2021년 2월 22일 ~ 2021년 3월 15일  
2021년 3월 29일 ~ 2021년 4월 12일  
2021년 4월 19일 ~ 2021년 5월 10일  
2021년 5월 17일 ~ 2021년 6월 13일  
2021년 6월 20일 ~ 2021년 7월 11일  
2021년 7월 18일 ~ 2021년 8월 15일  
2021년 8월 22일 ~ 2021년 9월 12일  
2021년 9월 29일 ~ 2021년 10월 13일  
2021년 10월 19일 ~ 2021년 11월 2일  
2021년 11월 9일 ~ 2021년 12월 7일  
2021년 12월 13일 ~ 2022년 1월 10일  
2022년 1월 17일 ~ 2022년 2월 15일  
2022년 2월 22일 ~ 2022년 3월 15일  
2022년 3월 29일 ~ 2022년 4월 12일  
2022년 4월 19일 ~ 2022년 5월 10일  
2022년 5월 17일 ~ 2022년 6월 13일  
2022년 6월 20일 ~ 2022년 7월 11일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15일  
2022년 8월 22일 ~ 2022년 9월 12일  
2022년 9월 29일 ~ 2022년 10월 13일  
2022년 10월 19일 ~ 2022년 11월 2일  
2022년 11월 9일 ~ 2022년 12월 7일  
2022년 12월 13일 ~ 2023년 1월 10일  
2023년 1월 17일 ~ 2023년 2월 15일  
2023년 2월 22일 ~ 2023년 3월 15일  
2023년 3월 29일 ~ 2023년 4월 12일  
2023년 4월 19일 ~ 2023년 5월 10일  
2023년 5월 17일 ~ 2023년 6월 13일  
2023년 6월 20일 ~ 2023년 7월 11일  
2023년 7월 18일 ~ 2023년 8월 15일  
2023년 8월 22일 ~ 2023년 9월 12일  
2023년 9월 29일 ~ 2023년 10월 13일  
2023년 10월 19일 ~ 2023년 11월 2일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7일  
2023년 12월 13일 ~ 2024년 1월 10일  
2024년 1월 17일 ~ 2024년 2월 15일  
2024년 2월 22일 ~ 2024년 3월 15일  
2024년 3월 29일 ~ 2024년 4월 12일  
2024년 4월 19일 ~ 2024년 5월 10일  
2024년 5월 17일 ~ 2024년 6월 13일  
2024년 6월 20일 ~ 2024년 7월 11일  
2024년 7월 18일 ~ 2024년 8월 15일  
2024년 8월 22일 ~ 2024년 9월 12일  
2024년 9월 29일 ~ 2024년 10월 13일  
2024년 10월 19일 ~ 2024년 11월 2일  
2024년 11월 9일 ~ 2024년 12월 7일  
2024년 12월 13일 ~ 2025년 1월 10일  
2025년 1월 17일 ~ 2025년 2월 15일  
2025년 2월 22일 ~ 2025년 3월 15일  
2025년 3월 29일 ~ 2025년 4월 12일  
2025년 4월 19일 ~ 2025년 5월 10일  
2025년 5월 17일 ~ 2025년 6월 13일  
2025년 6월 20일 ~ 2025년 7월 11일  
2025년 7월 18일 ~ 2025년 8월 15일  
2025년 8월 22일 ~ 2025년 9월 12일  
2025년 9월 29일 ~ 2025년 10월 13일  
2025년 10월 19일 ~ 2025년 11월 2일  
2025년 11월 9일 ~ 2025년 12월 7일  
2025년 12월 13일 ~ 2026년 1월 10일  
2026년 1월 17일 ~ 2026년 2월 15일  
2026년 2월 22일 ~ 2026년 3월 15일  
2026년 3월 29일 ~ 2026년 4월 12일  
2026년 4월 19일 ~ 2026년 5월 10일  
2026년 5월 17일 ~ 2026년 6월 13일  
2026년 6월 20일 ~ 2026년 7월 11일  
2026년 7월 18일 ~ 2026년 8월 15일  
2026년 8월 22일 ~ 2026년 9월 12일  
2026년 9월 29일 ~ 2026년 10월 13일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2일  
2026년 11월 9일 ~ 2026년 12월 7일  
2026년 12월 13일 ~ 2027년 1월 10일  
2027년 1월 17일 ~ 2027년 2월 15일  
2027년 2월 22일 ~ 2027년 3월 15일  
2027년 3월 29일 ~ 2027년 4월 12일  
2027년 4월 19일 ~ 2027년 5월 10일  
2027년 5월 17일 ~ 2027년 6월 13일  
2027년 6월 20일 ~ 2027년 7월 11일  
2027년 7월 18일 ~ 2027년 8월 15일  
2027년 8월 22일 ~ 2027년 9월 12일  
2027년 9월 29일 ~ 2027년 10월 13일  
2027년 10월 19일 ~ 2027년 11월 2일  
2027년 11월 9일 ~ 2027년 12월 7일  
2027년 12월 13일 ~ 2028년 1월 10일  
2028년 1월 17일 ~ 2028년 2월 15일  
2028년 2월 22일 ~ 2028년 3월 15일  
2028년 3월 29일 ~ 2028년 4월 12일  
2028년 4월 19일 ~ 2028년 5월 10일  
2028년 5월 17일 ~ 2028년 6월 13일  
2028년 6월 20일 ~ 2028년 7월 11일  
2028년 7월 18일 ~ 2028년 8월 15일  
2028년 8월 22일 ~ 2028년 9월 12일  
2028년 9월 29일 ~ 2028년 10월 13일  
2028년 10월 19일 ~ 2028년 11월 2일  
2028년 11월 9일 ~ 2028년 12월 7일  
2028년 12월 13일 ~ 2029년 1월 10일  
2029년 1월 17일 ~ 2029년 2월 15일  
2029년 2월 22일 ~ 2029년 3월 15일  
2029년 3월 29일 ~ 2029년 4월 12일  
2029년 4월 19일 ~ 2029년 5월 10일  
2029년 5월 17일 ~ 2029년 6월 13일  
2029년 6월 20일 ~ 2029년 7월 11일  
2029년 7월 18일 ~ 2029년 8월 15일  
2029년 8월 22일 ~ 2029년 9월 12일  
2029년 9월 29일 ~ 2029년 10월 13일  
2029년 10월 19일 ~ 2029년 11월 2일  
2029년 11월 9일 ~ 2029년 12월 7일  
2029년 12월 13일 ~ 2030년 1월 10일  
2030년 1월 17일 ~ 2030년 2월 15일  
2030년 2월 22일 ~ 2030년 3월 15일  
2030년 3월 29일 ~ 2030년 4월 12일  
2030년 4월 19일 ~ 2030년 5월 10일  
2030년 5월 17일 ~ 2030년 6월 13일  
2030년 6월 20일 ~ 2030년 7월 11일  
2030년 7월 18일 ~ 2030년 8월 15일  
2030년 8월 22일 ~ 2030년 9월 12일  
2030년 9월 29일 ~ 2030년 10월 13일  
2030년 10월 19일 ~ 2030년 11월 2일  
2030년 11월 9일 ~ 2030년 12월 7일  
2030년 12월 13일 ~ 2031년 1월 10일  
2031년 1월 17일 ~ 2031년 2월 15일  
2031년 2월 22일 ~ 2031년 3월 15일  
2031년 3월 29일 ~ 2031년 4월 12일  
2031년 4월 19일 ~ 2031년 5월 10일  
2031년 5월 17일 ~ 2031년 6월 13일  
2031년 6월 20일 ~ 2031년 7월 11일  
2031년 7월 18일 ~ 2031년 8월 15일  
2031년 8월 22일 ~ 2031년 9월 12일  
2031년 9월 29일 ~ 2031년 10월 13일  
2031년 10월 19일 ~ 2031년 11월 2일  
2031년 11월 9일 ~ 2031년 12월 7일  
2031년 12월 13일 ~ 2032년 1월 10일  
2032년 1월 17일 ~ 2032년 2월 15일  
2032년 2월 22일 ~ 2032년 3월 15일  
2032년 3월 29일 ~ 2032년 4월 12일  
2032년 4월 19일 ~ 2032년 5월 10일  
2032년 5월 17일 ~ 2032년 6월 13일  
2032년 6월 20일 ~ 2032년 7월 11일  
2032년 7월 18일 ~ 2032년 8월 15일  
2032년 8월 22일 ~ 2032년 9월 12일  
2032년 9월 29일 ~ 2032년 10월 13일  
2032년 10월 19일 ~ 2032년 11월 2일  
2032년 11월 9일 ~ 2032년 12월 7일  
2032년 12월 13일 ~ 2033년 1월 10일  
2033년 1월 17일 ~ 2033년 2월 15일  
2033년 2월 22일 ~ 2033년 3월 15일  
2033년 3월 29일 ~ 2033년 4월 12일  
2033년 4월 19일 ~ 2033년 5월 10일  
2033년 5월 17일 ~ 2033년 6월 13일  
2033년 6월 20일 ~ 2033년 7월 11일  
2033년 7월 18일 ~ 2033년 8월 15일  
2033년 8월 22일 ~ 2033년 9월 12일  
2033년 9월 29일 ~ 2033년 10월 13일  
2033년 10월 19일 ~ 2033년 11월 2일  
2033년 11월 9일 ~ 2033년 12월 7일  
2033년 12월 13일 ~ 2034년 1월 10일  
2034년 1월 17일 ~ 2034년 2월 15일  
2034년 2월 22일 ~ 2034년 3월 15일  
2034년 3월 29일 ~ 2034년 4월 12일  
2034년 4월 19일 ~ 2034년 5월 10일  
2034년 5월 17일 ~ 2034년 6월 13일  
2034년 6월 20일 ~ 2034년 7월 11일  
2034년 7월 18일 ~ 2034년 8월 15일  
2034년 8월 22일 ~ 2034년 9월 12일  
2034년 9월 29일 ~ 2034년 10월 13일  
2034년 10월 19일 ~ 2034년 11월 2일  
2034년 11월 9일 ~ 2034년 12월 7일  
2034년 12월 13일 ~ 2035년 1월 10일  
2035년 1월 17일 ~ 2035년 2월 15일  
2035년 2월 22일 ~ 2035년 3월 15일  
2035년 3월 29일 ~ 2035년 4월 12일  
2035년 4월 19일 ~ 2035년 5월 10일  
2035년 5월 17일 ~ 2035년 6월 13일  
2035년 6월 20일 ~ 2035년 7월 11일  
2035년

# A Sustainable Future for Exuma

## 2014

바하마 지역의 환경 친화적 개발을 연구하는  
Exuma 프로젝트의 두번째 연간 보고서 디자인  
및 현지인들에게 나눠준 홍보물 디자인





A Sustainable Future for Exuma

2014



Exuma 아이덴티티를 응용한 티셔츠 및 에코백 디자인

2 of 2

**감사합니다.**